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의 신성을 따라 세워진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앞장 서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12)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5월 10일 (토) 제 148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할 때!”

## 월드, 2014 국가기도의 날 행사 현장 보도

미국인들이 기도를 통해 개인적인 죄들을 회개하고 미국 문화에서 의로움을 회복하려는 취지의 '2014 국가기도의 날'이 지난 5월 1일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됐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미국을 세워나간 건국자들의 신앙 때문에, '국가기도의 날'은 미국 역사와 전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775년 대륙 의회가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묻기 위해 처음으로 '기도의 날'을 요청하고,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역시 "겸손, 금식 그리고 기도 하는 날"로 모든 미국인이 기도할 것을 요청한 것과 같이 미국 문화와 신앙 유산들 중 핵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드는 2004년 미 국가기도의 날의 크게 드러난 기도제목은 바로 낙태방지, 종교적 자유 신장 그리고 겸손의 요구라고 보도한다(National prayers for national problems: Speakers at today's National Day of Prayer event addressed abortion, religious liberty, and the need for humility).

소송 즉 종교적 단체들의 줄소송이 100건 이상이나 된다"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와 교회, 선교단체들 간 진행되고 있는 법적 공방을 소개했다.

폴리 판사는 연방세무법원 판사로 임명될 때부터, "나는 임법자들을 위한 판결이 아닌 바로 주님만을 위한 판결을 하겠다"고, 자신의 신앙을 천명할 정도로 신앙의 사람이다. 따라서 그는 "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는 직무는 단순한 법적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연설하고, 낙태문제를 둘러싼 공방 역시 바로 기독교적 신앙을 가진 법조인들이 반드시 기도하면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5월 1일에는 워싱턴DC에서만 국가기도의 날이 거행된 것이 아니라, 미전역 50개 주에서 모든 주지사들이 미국을 위해 기도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기도는 바로 "예배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위도 매일 해야하는 훈련"이라고 천명했다.

결론으로, 이날 주강사로 초청된 빌리 그레함 목사의 딸, 앤 그레함 노츠는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재정적, 사회적 도전들은 바로 미국에 적색 신호를 보내는 경고이기에 반드시 기도도 이를 회개하고 갱신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하나님은 항상, 항상, 경고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이에 대한 오직 하나의 해결책은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라며, 그녀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에게 울부짖을 것을 호소했다.



### “하루하루가 기도하는 날...”

## 퓨트럼,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5가지 기도사실 보도

1. 국가기도의 날은 미의회와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서 1952년 제정됐다.

당시 상황에서 미국의 배경 즉 기독교 신앙의 힘이 필요했던 시점이었다. 바로 소련연방과의 냉전으로 지구촌 역학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었기에, 미국은 공식적으로 무신론 국가인 소비에트연방과의 차별을 위해 신앙적인 안정이 필요했다. 따라서 1954년에 곧바로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에 "하나님이 보우하시라"라는 문장이 첨부됐다.

2. 진보 단체(Freedom From Religious Foundation)는 계속해서 '국가기도의 날'이 헌법 위반이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 번도 승소하지 못했다. 2011년 미 연방제7순회법원은 동 단체가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어떠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

3. 많은 미국인들에게 있어 하루하루가 기도하는 날이다. 미국인 중 과반수이상(55%)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2013년 퓨리서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나타났다. 그리고 23%는 기도를 주 또는 한 달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21%만이 가끔 하거나 아예 안한다고 응답했다.

2012년 설문조사에서도, 76%의 미국인들은 "기도가 자신의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바로 지난 25년 동안 거의 비슷한 수치로, 미국인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4. 2010년 USA투데이(갤럽)의 공동 설문조사는 미국인들에게 '국가기도의 날'에 대해서 설문했다. 과반수이상 즉 57%는 국가기도의 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불과 5%만이 반대했다. 38%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5. 올해 국가기도의 날 행사는 뉴욕 그리스 타운에서도 거행됐다. 이곳에 참석하신 크리스천들은 바로 법원의 판결 즉 입법부, 국회가 모임을 열 때, 기도도 시작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렸다. 현재 연방의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입법기관들에서는 기도도 일과를 시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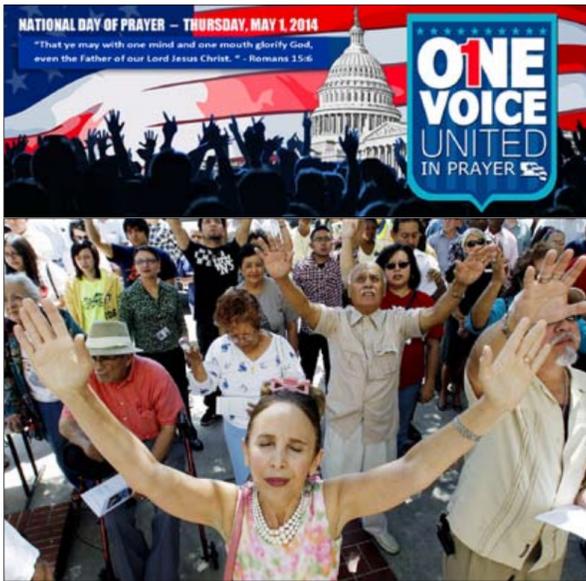
## 낙태방지·종교자유 신장·겸손

복음주의 진영 우익의 최성봉에 있는 제임스 답슨 목사(포터스온더패밀리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 이상의 낙태 옹호 입장이나 정책 등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답슨 목사는 행사 중반부에 등장해 "미국의 도덕성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낙태 문제"라고 소개하면서, 특히 오바마케어와 교회나 선교 단체들을 포함한 모든 고용주가 낙태 처방 보증을 부담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더 나아가서 답슨 목사는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낙태 대통령"이라고 결연하게 선포하고, 더 이상 오바마 행정부가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공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동료 크리스천들과 함께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답슨과 그를 따르는 크리스천 진영은 오바마 행정부와 낙태전쟁에서 먼저 승리를 거뒀다. 지난 4월 17일, 플로리다 주 법원은 답슨의 라디오 미니스트리가 낙태약(morning-after) 처방을 위한 명령 조항에서 면제되고, 직원들의 건강보험에서도 인공적인 임신 중절이 커버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바로 크리스천 신앙을 실제로 행하는데 있어, 오바마케어가 심각한 부담을 준다고 로버트 블랙워드 판사는 답슨측의 승



미국 국가 기도 의 날은 건국자들의 신앙전통 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소 이유를 설명했다.

답슨 목사는 따라서 국가기도의 날 연설에서, "만약 오바마케어가 시행되고, 이를 거부했을 때 발생되는 벌금이 1년에만 80만 달러"가 되며, 이 금액은 자신의 라디오를 사역을 담당 문 단계 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기도의 날에 참석한 1995년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연

방세무법원 판사로 임명된 폴리(M Foley)판사는 "답슨 목사와 같은



2면

전 교인을 리더인 동시에 팔로워로 만들라!



3면

담임목사의 비전과 확신 중요!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 원장)



16면

우크라이나 이야기들 오금우 선교사(아틀란타 롬한인교회)

###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교인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세계의 중심에서 신학교육의 지평을 넓혀 갑니다

#### 2014년 여름계절학기 강의시간표

	과목명	담당교수	시간	기간
B.A. & M.Div.	미주 2세 교육철학	현용수	주간	5월 26일 (월) ~ 30일 (금)
	'고엘(GOEL) 포럼' * '고엘'은 히브리어로 "기쁨"을 뜻하는 단어로, "기쁨포럼"이라는 뜻입니다.	9명의 강사들	주간	6월 9일 (월) ~ 12일 (목)
B.A.	기독교윤리학	강우중	주간	6월 9일 (월) ~ 13일 (금)
	동양철학개론	구경모	주간	6월 16일 (월) ~ 20일 (금)
	한국교회의 신학사상사	박정환	주간	6월 16일 (월) ~ 20일 (금)
M.Div.	에스엘, 비전과 현실사이에 선 신자	김수정	야간	6월 16일 (월) ~ 27일 (금)
	구원론과 생리학	김상구	주간	6월 23일 (월) ~ 27일 (금)
	신구약 중간사	이상명	주간	6월 30일 (월) ~ 7월 3일 (목), 7일 (일) *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금)은 제외.
	히브리어 신학	TBA (후후공제)	야간	7월 7일 (월) ~ 18일 (금)
	세계선교의 역사	김신	야간	7월 21일 (월) ~ 8월 1일 (일) * 수요일 (23일과 30일) 제외.

- 강의시간: (1) 주간반 (1주간) - 9:00 A.M. ~ 5:00 P.M. (2) 야간반 (2주간): 7:30 P.M. ~ 11:00 P.M.
- '미주 2세 교육철학' 과 '고엘포럼'은 일반인 무료 참석가능.
- '고엘(GOEL) 포럼' 강사진: 고승희 (아름다운교회담임), 민종기 (총현선교교회담임), 정진영 (TEDS), 김지현 (총신대), 백신홍 (TRINITY INTL UNIV.), 이필환 (웨신대), 김형규 (필로소피담임), 본교교수 (이상명, 조진성, 김수정)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a.edu / office@ptsa.edu

### 2014년 여름계절학기·가을학기신(편)입생 모집

**01 pts** 학사 (B.A.), 교역학석사 (M.Div.) 과정 (온라인 원격강의 개설)

여름계절학기 개강일 : 2014년 5월 26일  
가을학기 개강일 : 2014년 8월 25일

**02 pts**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 산타페언어문화교육원 ESL 과정

여름학기 개강일 : 2014년 5월 19일  
가을학기 개강일 : 2014년 9월 8일

- 입학 및 등록: 본교 홈페이지 (www.ptsa.edu) '입학 정보실' 참조
- 입학관련 문의: 미국 1-562-926-1023 ext.300 / office@ptsa.edu 한국 010-6612-1165 (담당: 박정환 목사)
- ESL 문의 및 상담: 강우중 교수 (wj kang@ptsa.edu)

**03 pts** 2014년 가을학기 야간 강의 - 나성영락교회에서 개설

2014년 여름계절학기과 가을학기 - 온라인강의 수강 가능

I-20 발행

정회원 ats 준회원

총장 이상명 박사 / 이사장 김인식 목사

※ Office 임대합니다. (1,300, 900, 800 sqft)



시론

사슴나무골에서 가꾸는 텃밭 이야기(4): 선한 한국인의 꿈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지구상에는 약 6,000여 종족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도 다양하게 수많은 인류의 종족들 가운데 코리안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리안이라고 하면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6.25 전쟁을 겪은 나라라는 것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던 동양의 작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발전과 아울러 뛰어난 한국제품들의 성공적인 수출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올림픽 개최와 월드컵 축구 등으로 지명도를 높여가다가, 한류문화의 확산으로 이제 한국과 한국인은 소위 선진국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 듯 되었습니다.

사실 수년에 한 번씩 고국을 방문할 때마다 경제적인 발전상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에 걸리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공해문제도 그렇고, 정치문화는 필자가 한국을 떠난 30여년전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듯 했습니다. 교통 및 주차질서는 여전히 문란하고 행인들은 보행 중 몸을 부딪치고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커널 목례조차 하는 사람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외관상으로는 분명히 잘 살게 된 듯 보였으나, 그 내면은 아직도 상식과 배려, 도덕과 윤리, 질서와 정의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졸속 성장의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오염되고 왜곡된 삶의 정신들이 너무나 널리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니다.

한국의 대형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향력과 설득력조차 상실한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모든 면에서 앞장서서 세상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교회와 목회자,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정부패와 탐욕에 이끌려 힘을 잃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제 젊은이들과 전도 대상자들은 더 이상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과 성결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까지 조래하는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병원 이름 가운데 가장 흔하고 많은 것이 선한사마리아인(Good Samaritan) 병원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받던 보잘 것 없는 종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이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을 공훈을 베푸는 진정한 이웃이라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인 앞에는 늘 선하다는 형용사가 지난 2000여년 동안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30여 년을 살면서 한인 크리스천으로서 한 가지 꿈을 지니고 살았는데, 언젠가 코리안 앞에 '선한' 코리안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과 한국인,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침몰시킨 사건 같아 보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온 세계에 '선한 한국인'(Good Korean)이라는 이름을 세우는 자숙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부상을 입은 환자를 이웃처럼 돌보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써가며 그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서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도 않았고, 체면과 명성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유가족이나 이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온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공훈이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공훈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훈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마5:7)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겨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보혜사 성령님의 참된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봅시다.

전 교인을 리더인 동시에 팔로워로 만들라!

리더십저널, 로버트 K. 그린리프의 모범적 조직 교회 원리 소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적 공동체지만 또한 제도적 기관의 옷을 입고 있다.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은 교회도 제도적 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제도적 기관이 반드시 부정적인 개념은 아니다. 제도적 기관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다수의 조직들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았고, 부정적인 면이 지나칠 정도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도적 기관들에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규제나 규율 등 필수적인 제약을 단점에서 장점으로 승화시

키며, 새로운 제도적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희망을 품고 용기 있게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를 이끄는 가장 이상적인 길이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모든 종교기관이 본받아야 할 표본적인 기관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거대한 목표를 세워보라! 그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보상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클 것이다. 로버트 K. 그린리프 목사는 교회를 표본적 기관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일반적인 전략을 다음과 소개한다.

이 커질 때, 교회는 목표에 한층 쉽게 다가갈 수 있다.

3. 조직과 구조, 운용방식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교회에서도 리더의 권한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교회도 규율을 갖추고 있어야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다른 이들을 돕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교회에 규율을 세울 때, 그 권한이 어떻게 구조화되느냐가 무척 중요하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 구조에서 정점을 차지하는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돼있는 것은 위험하다. 그의 진부한 생각이 회교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 권한은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한 모임(당회, 운영위원회 등)에 주어져야 하며, 그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4. 바깥에서 지도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

지도력을 보유한 팀(당회 등) 바깥에서 좀더 초연하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리더들의 잘잘못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들의 역할은 교회가 설정한 목표에 맞는 결정을 해나가고 있는지 면밀히 감시하고, 비판자이자 옹호자인 동시에 조직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교회 내의 리더십이 담임목사 1인 중심 체제가 아니라 동등한 권한을 지닌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은 꼭 필요하다

1.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등교인인 모두가 한층 곁절한 목표를 더 효율적으로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공유해야 한다. "모두"는 문자 그대로 "모두"를 뜻한다. "대부분" 또는 "거의 모두"가 아니다.

교회도 인간의 모임이기에 실수가 없을 수 없다. 하지만 교인들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용납되는는 안 된다.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를 세



전 교인이 공유하는 목표 제시 잘 섬기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 리더 권한의 바른 구조화 중요 목사1인 중심체제의 모임 필요

밀하게 분석해 다음에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훈이 되어야 한다.

2.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리더인 동시에 팔로워가 돼야 한다.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섬김이 몸에 배인 사람들에게 리더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교인들 모두를 더 나은 수준으로 성장시키려는 교회는

만드시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섬김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더 건전하고 더 지혜롭게, 더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행동하도록 돕는다. 또 다른 이들을 자기와 같은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섬기는 리더들의 역할

최고의 리더는 시행착오 통해 만들어진다!

리더십저널, 한스 핀젤의 실수 없는 탁월한 리더 원칙 소개

한스 핀젤(Hans Finzel)은 1980년 CBINTERNATIONAL(CBI)을 통해 사역에 첫발을 내딛은 후 10여 년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동유럽 지역의 리더십 훈련을 맡아온, 탁월한 리더십 전문가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실수와 다양한 사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예수의 리더십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실제적인 적용점들을 제시해준다. 즉 리더십이란 '일'이 목적이 아닌 '사람'을 상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리더의 위치에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을 고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에서 리더의 자리에 오른 많은 사람들은 리더십과 관리에 대해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채 리더의 자리에 오른다. 대부분의 신학교는 이

런 훈련과정을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자각이 있으나 조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된다. 문제는 리더십이 머리와 마음 양쪽 모두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and a subscription form.

Large advertisement for Midwest University, featuring the text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and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along with details about degree programs and campus information.

# 담임목사의 비전과 확신 중요!

## 스몰그룹닷컴, 소그룹 사역 정체 4가지 원인 소개

1990년대 후반부터 교회에는 전통목회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 다양한 이름의 소그룹 목회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세계적인 셀목회의 대가들이 그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들의 도움으로 교회는 소그룹 운동에 관심을 가졌고, 이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되고 영적으로 침체해가던 교회들이 다시 성장하게 됐다. 그러나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듯하던 소그룹목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시들해지는 분위기다. 왜 소그룹 사역의 정체가 도래하고 있을까? 그 원인을 다음 몇 가지로 분석해볼 수 있다.

1. 영적지도자인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 빈곤하기 때문이다.

소그룹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교회이며, 소그룹 목회는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시신 사역 모델, 곧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목회방법 가운데 하나로 인식한다면, 소그룹 목회는 생동감을 잃고 소그룹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담임목사가 소그룹 목회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목회 핵심으로서 소그룹 목회에 매진할 때 소그룹은 갈 길을 되찾을 것이다.

2.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의 부재 때문이다.



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무리하게 분가를 시킬 때는 대개가 전도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려는 조급함이 작용해서인데, 이럴 경우 자칫 사람을 전도의 도구로 삼을 가능성도 있고 소그룹을 피라미드식, 다단계식으로 운영하는 편법이 활용될 수도 있다.

전도와 분가는 소그룹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성은 이보다 더 선행돼야 할 가치다. 분가의 기준으로 공동체성을 존중한다는 말은 분가를 자연스러운 순리에 맡기는 것과 같아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분가 후에도 생명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4. 공동체 간 균형의 상실 때문이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공동체는 큰 공동체와 기초 공동체가 균형을 이뤄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보완해주는 유기적 관계로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에 무게의 중심이 실릴 경우 기형적인 형태가 되어 결국 건강을 잃고 병들게 마련이다.

큰 공동체는 크기 때문에, 기초

## 훈련되고 자격있는 평신도리더의 부재 교회공동체 간의 균형 있는 운영 필요

에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못한 채 명맥만 유지하거나, 심지어 소그룹인도자로 말미암아 구성원들이 상처를 받고 훈련에 빠지기도 한다. 소그룹의 지도자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개인적으로 변화와 성숙을 이룬 다음 신중하게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대개는 담임목사)는 소그룹의 지도자를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3. 공동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분

가 중심의 운영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성경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교회의 가정교회는 분가의 시점을 잡을 때 공동체성, 곧 가원들이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임을 충만히 누리려는지를 우선 고려한다. 공동체성을 외면한 채 소그룹을 물리적으로 분가시키거나 재생산 일변도로 나누는 방식은, 마치 생각지를 찢는 일과 다름없으므로 아무래도 부작

공동체는 작기 때문에 저마다 강점과 약점이 있다. 예를 들어 큰 공동체에서는 친밀감의 형성, 인재의 발굴, 은사의 활용 등이 쉽지 않지만, 소그룹에서는 오히려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또 기초 공동체인 소그룹에서는 깊이 있는 성경강해나 교리공부, 성경연구, 다양한 교육이나 훈련 등이 쉽지 않은 반면, 큰 공동체에서는 가능하다. 시급한 일이 이 균형을 하루 빨리 회복하는 것이다.

(2면에서 계속)

리더십의 훈련부족은 결국 자신들의 경험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 결과를 낳는다. 그들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폭넓게 훈련을 받았지만, 정작 목회의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리더십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게끔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리더는 사람들

통해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실수와 실패의 예는, 리더들이 자주 반복해서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함정은 무엇일까? 그리고 타인이

1. 무조건 명령하지 말라.
2. 사람을 우선에 두라.
3. 확신 있게 말하라.
4. 도전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
5. 독불장군이 되지 마라.
6. 믿고 맡겨라.
7. 온 마음으로 대화하라.
8. 함께 나아가라.
9. 사람을 키우라.
10. 꿈꾸는 자가 되라.

결국 리더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실수를 통해 좋은 리더가 되는 안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러한 실수를 피함으로써 교회나 단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들로 구비돼야만 한다.

## 최선의 리더는 타고나지 않고 배우는 것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최악의 실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훈련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최고의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이 혼자서는 결코 가지 않을 곳으로 그들 스스로 가게끔 만드는 사람이다. 좋은 리더십에 대해서 배운 것 중 가장 큰 교훈은 실수와 실패의 예를

저지른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훈은 무엇일까? 한스 핀젤은 리더가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를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 "가정 안전 불감증 더이상 관망 말고 견져내야 합니다"

## 제4회 청교도가정사역세미나

교회 내에는 아직도 부부 싸움으로 좌절 속에서 억지로 살아가시거나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청교도 가정사역원에서는 하나님께 영광되리는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함께 어려움에 처한 교우님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이번과 같은 멘토링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가정안전 불감증처럼 관망하시기 보다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 주 제: "분노조절과 부부 대화" 멘토링 코스 3회
- 내 용: 1. 어린 시절 발달 과정과 배우자 선택의 관계  
2. 공감 능력 발달과 치료자로서의 배우자  
3. 첫사랑 회복 체험  
4. 분노의 메카니즘과 성경말씀  
5. 부부 대화 훈련, 후후계획

- 일시: 목회자 부부: 6월 2일(월), 3일(화), 5일(목) 8:00-10:00 PM  
평신도 부부: 5월 26일(월), 27일(화), 29일(목) 8:00-10:00 PM

- 대상: 목회자 부부 (전도사, 선교사, 신학생, 가정사역자 포함) / 평신도 부부(장로, 집사, 무직분)
- 장소: 패밀리 터치 뉴욕지부 (소장 임근영목사) 161-08 46 Ave, Flushing, NY 11358
- 강사: 유경옥 전도사 (UTS 기독교교육학전공 박사과정, 부평현대교회 가정사역부담담, 수곡기독교회원 원장)
- 주최: 청교도 가정사역원 (원장 유경옥 전도사 sookokart@gmail.com, 한국(010)2816-3475, 미국입시 (917)251-3039)
- 회비: 목회자 부부 \$100 / 평신도부부\$200
- 신청 및 연락처: (Pay To Order: Young Lim, 718-961-0151, 917-698-6065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수 팀을 모집하오니 준비관계상 선불로 신청하여주시요) (주소: 패밀리터치 뉴욕지부)



## 소망 칼럼

### 신앙 있고 쓸 만한 사람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옛날 우리 선조들은 사람 됨됨이를 평가할 때 두 가지 기준, 곧 칭찬과 돈을 가지고 평가했다. 칭찬했을 때 우쭐하고 교만해지면 몸쓸 사람이요, 겸손하면 쓸 만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돈을 주고서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 보았다. 선행에 그 돈을 쓰면 관찮은 사람이요, 사치나 쾌락을 위해 쓰면 몸쓸 사람이라고 여겼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는 복 받은 것이요, 가난은 일종의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물론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 잘 믿은 신앙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돈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믿음생활을 재어보는 잣대와 같고 무게를 재는 저울과 같다. 사람의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자세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눅12:34). 우리는 어디에 보물을 두어야 하는가? 보물을 두어서 항상 그리워할 그곳은 어디인가?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마6:20)고 말씀하셨다. 하늘에 쌓아 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행을 위해 돈과 재물을 쓰라는 뜻이다. 돈을 쓰일 만한 곳에 바로 쓰라는 것이다.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마음도 절로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

대만의 최대기업 "포모사그룹"의 창업자인 왕용칭은 15세에 쌀집 점원으로 시작했지만 훗날 30개 계열사에 9만명 임직원을 두고 연매출 600억 달러 대를 달성하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대만에서 "경영의 신"으로 존경받던 왕용칭 회장은 2008년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재산 9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인간은 누구나 재물의 부를 바라지만 태어날 때부터 재물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떠날 때 재물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모으는 재산은 다들지 모르지만 세상과 작별할 때는 모두 사회에 돌려줘야 하는 것에는 예외가 없다. 내가 소유한 돈은 하늘로부터 잠시 빌린 것일 뿐이다"

"성공할 인생"의 가장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욕망으로 살아간다. 인생 중에 성공할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히브리 시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하였다(시127:1-2). 이 말씀은 인간이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수고와 노력만 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지 못하여 만사가 허사가 된다. 칭찬에 겸손함으로 쓸 만한 사람이 되고 돈을 바로 쓰고 하나님을 위하여 정성된 헌금을 드림으로 축복 받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의지와 재능이 자기가 하는 일을 성공으로 이끌어준다고 생각하며 산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자기 의지적 믿음이 교만이고 착각에 불과한 것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꿈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한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되고 성공하는 비결은 인내와 노력, 부지런함과 기도,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 뿐이다(신28:1-6).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5)

조선시대 세자에게는 감성을 자극하는 시나 문학을 가르치기보다는 머리를 많이 써야하는 철학을 공부시켰다고 한다. 군왕에게는 감성보다는 냉철한 이성을 통한 분별

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감성적인 사람은 모질지 못하다. 지도자가 냉철하지 않게 되면 급박한 국가적 상황에서 분별력을 잃기 쉽다. 그럼에 비해 마르쿠스

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철학자다. 사상으로 분별력을 잃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훌륭한 지도자에 대하여 언급할 때 소위 준비된 자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161-180)는 잘 준비된 자였다. 광란의 지도자 갈리굴라(37-41)가 4년 만에 친위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 와중에 준비되지 못했던 황제가 갈리굴라의 삼촌 클라우디우스 황제다. 그러나 아우렐리우스는 달랐다. 그는 안토니우스 황제 곁에서 세 번의 콘술을 역임했고, 호민관도 했고 공동 황제의 역할까지 두루 경험할 수 있었으니 행운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어릴 때부터 총

명하여 사람들의 큰 기대를 받았다. 특히 할아버지는 로마의 집정관을 연임하는 중이었고 고모는 황제에 즉위하기로 약속된 사람과 결혼했고 조카 아우렐리우스에게 제위를 계승하기로 정해진 상황이었다. 이런 가문이란 점은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당시는 오현제의 시대로 국가의 평화가 정착되었던 시기였다. 왕의 지도력은 항상 평안한 때 보다는 국가의 위기에서 역량이 드러나도록 되어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지도력을 시험이라든 하려는 듯 그가 왕이 되자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었다. 마치도 구명난 호수 이곳저곳에서 물이 새어나오듯... 161년에 동쪽에서는 파르티아가 위협의 세력으로 부상했고,

도나우 강 유역에서는 게르만족이 국경을 위협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팍스로마나의 평화가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 황제의 일차적 임무는 조국을 위기에서 안전하게 지켜내는 일이다. 고로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스토아 철학자로 고요하게 사색을 즐기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거기에 몰입할 수가 없었다. 그는 병약한 몸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해 전전공공해야 했다. 그는 최전선 다뉴브에서 무려 8년 동안을 부하들과 함께 기거하며 적과 싸워야 했다. 그런 노력으로 국가는 안전을 회복하게 되었으나 그는 결국 비엔나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그가 쓴 명상록도 말의 안장위에서 툼툼이 떠오른 생각을 쪽지에

기록한 글들이었다.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아무리 지도력이 뛰어나고 현명하다 해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면 지도력은 손상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다. 수많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사를 바라보면서 철학자였던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셰익스피어는 그를 가장 고귀한 로마인이라고 했고 율리아누스 황제는 그를 가장 뛰어난 계몽 통치자로 치부하였는데 말이야. 그는 자신의 명상록에서 이런 말을 했다.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이다. 강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항상 내부에서 찾는 법이다" (7편으로 계속)

### 푸/른/초/장

하경남 목사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



단하며 정죄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너무 의인되려 하지 말라. 협조하지 않으면 욕하고 편을 가르려고 하는 것 모두가 오만한 모습이다.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겸손이 복 있는 사람이다.

2.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2절).

생긴다. 이게 우리의 복이다. 지혜는 사람에게 새 힘을 준다.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기도와 말씀읽기를 조언해보라. 지혜는 머리 굴리는 게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다. 지혜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다. 이게 복이다.

3. 형통의 복 (3절).

팔레스타인에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죽는 나무가 많다. 그런데 언제나 푸르게 잘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샘 곁이나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오늘 말씀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니까 물가에 심겨진

정신 차리고 보면, 나보다 한참 앞서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생략하려는 욕심이 생긴다. 그러나 기억하라. 말씀으로 다져진 사람을 말씀이 보호한다. 말씀이 일하신다. 처음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알았다. 그런데 돌아보니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다.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은 인정하셔야 진짜 인생 산 거다. 인정받아야 성공이다. 이게 제대로 산 인생이다. 어떤 길을 갈까?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길로 가야 한다. 속도는 다음이다. 방향을 잡아야 빨리 가는 게 유익이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자기 할 말 다 하지 못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반문한다. 모르는 소리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사람을 얼마나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는지. 기쁨이 우리의 양식이다.

세상은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갖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 그런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다. 많이 가졌기에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오래 살았기에 가서는 안 될 곳까지 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서서 우리의 삶을 귀중하게 보신다. 결국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린 자들만 영원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함께하신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래서 내 인생은 뒤쳐진다고 고민되는가? 아니다.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의인들의 회중에 포함되어 있는 복된 인생이다. 아멘.

## “형통한 길을 선택한 사람”

(시1:1-6)

복 받은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은 다르다. 복 받은 사람은 과거에 복을 받은 그 덕으로 사는 사람이다.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 건강을 물려받은 사람,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귀하다. 영적으로도 그렇다. 인생바다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놀라운 체험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귀하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 늘 복이 함께 하는 사람,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늘 복속에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순간마다 느껴며 사는 사람이다. 복이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늘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해진 길이 있다. 그 길은 보기엔 재미없어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 다. 1. 세 가지를 부정하라 (1절). 1)악인의 꾀를 좇지 말아야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악한 얘기를 자꾸 들으면 영향 받는다. 기분이 좋지 않다. 좋지 않은 생각이 든다. 화가 난다. 브라질TV에서 매일 저녁 그

2)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해서 죄를 짓는가? 적어도 한 번은 생각했기에 죄를 짓는 거다. 바로 그 생각, 충동질을 마귀가 한다. 의심을 커지게 한다. 미움을 커지게 한다. 분노를 커지게 한다. 이게 충동이다. 이 충동을 이길 수 있다면 죄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다. 악한 자는 우리 마음을 충동질 하는

세상엔 그리스도인들보다 잘사는 사람이 엄청 많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어도 삶이 비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일만은 복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는 복은 따로 있다. 그 복에 비하면 이 세상의 복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심령으로부터 받는 복이다.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나무처럼 언제나 형통하더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처음부터 형통한가? 아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딘 인생을 산다. 말씀대로 하기 때면 말씀에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결론은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서 생긴다. 믿음의 몸집을 불리는 게 중요하다. 믿음의 몸집은 말씀에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큰 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그래서 지혜가

날의 강력사건을 다룬 방송을 무려 2시간 한다. 처음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서 봤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보고 나면 기분이 영 좋지 않다. 영향을 받은 거다. 그래서 안 본다. 복 있는 사람은 듣는 것을 삼간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다. 들려오는 게 너무 많다. 그 모든 말들은 우리 영혼에 영향을 준다. 잘못 들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교회가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멀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문이 없다. 별별 소리 다 듣는다. 소리에 영향 받는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마음에 문이 달려 있다. 그래서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한다. 마음의 문을 단속하자.

레위기의 깊고 푸른 진리의 숲을 거니는 소강석목사의 신학적 사색과 통찰 유대 랍비들의 문화적 배경, 구속사적 관점 그리고 교회론적 적용, 통전적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펼쳐가는 레위기 스토리텔링 예배, 복음,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한 신비롭고 놀라운 입체적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 레위기의 산을 정복하라

난해한 레위기를 정복할 수 있는 쉽고 간결한 레위기 입문서! 이 한 권의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도 레위기의 산을 정복할 수 있다.

### 맨발의 소망의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예멘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미션 루터 킹 페어리드' 집행위원장이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받았다. 일상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십자가를 체험하라	320면 / 12,000원	새명나무	503면 / 16,000원
스색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315면 / 12,000원	사당다리 예배자	264면 / 10,000원

금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금란.금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gumran.co.kr • 서울 중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AB 1266연장전 돌입! 긴급 중보기도 요청**

Privacy for All Students(PFAS)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라!” 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단체들이 모여 만든 PFAS팀은 유치원생들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남녀의 생리적 성향(biological sexual orientation)이 아닌 학생들이 그날그날 느끼는 성향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은 사위실, 탈의실, 화장실, 유치원생들은 화장실을 남자과 여자 학생들이 함께 혼용으로 사용하게 허락하는 황당스런 법안인 AB1266을 폐지하기 위하여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1차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승리였습니다. 비록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법정까지 가야 했지만 법정에서는 우리 손을 들어주었고, 캘리포

로 법정에서는 논쟁이 있었으나, Bowen과 AB1266측에서 우리측 요청을 끝까지 받아주지 않겠다고 함으로 인해 이 법정 전쟁은 연장전까지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4월 21일 (하급)법정에서는 Debra Bowen 쪽의 손을 들어줌으로 저희 PFAS팀은 더 긴 연장전에 돌입, 상급법원에 상소하게 됩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의 에피소드 지난 4월 11일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Bowen측 변호사가 우리 측을 향해 “캘리포니아 시민들의 서명은 이미 유효화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무효화 된 서명들을 그만 인정하고

때, 하급법정에서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Bowen의 정치적 권력과 함께 손을 잡은듯합니다.

잘못 무효화 된 서명들의 예(3월에 있던 일들) 주로 “유권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화 된 서명들이 많았는데, 정작 유권등록페이지에서 찾아보면 유권자 등록이 이미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대부분의 케이스였음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각 카운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명한 글자나 숫자가 조금 비뚤어졌다든지, 조금 줄을 넘었다든지 등의 가지가지 이유들을 만들어서 무작위로 무효화 시켰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당시 심적으로만 정치인들이 뒤에서 뭔가 방해 작업을 하고 있다고만 느꼈던 것이 이번 AB1266법안 폐지운동과 그 과정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2014년 중간선거 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15개의 카운티들은 Bowen과 캘리포니아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우리를 돕지 않기로 결정을 뒀다는 인사이드 뉴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당하게 무효화 된 서명 문서들을 각 카운티에서 PFAS팀에게 보내야 증거로 삼아 소송을 이길 수

**기독교연맹 PFAS 상급법원에 상소 연장전 돌입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합심기도 당부**

니아주에서 요구하는 95%의 유효 서명을 충분히 만족시켰음을 인정 받고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5%의 유효서명을 만족시키는 것 또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PFAS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504,760개의 서명보다 120,000개가 훨씬 넘는 서명들을 힘써 모아 58개의 카운티에 제출했으며, 무효화 될 수 있는 서명들을 충분히 고려했던 저희 PFAS팀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5%를 카운트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PFAS팀과 캘리포니아의 국무장관(Secretary of CA) Debra Bowen과 의견대립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Bowen 국무장관 쪽에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서명들을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무효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희 PFAS 팀에서 재조사한 결과 “잘못 무효화 된 서명”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PFAS는 캘리포니아 국무장관(Secretary of California) Bowen을 대상으로 무효화 시켜진 서명들을 PFAS팀에서 정식으로 전체 재검토할 뿐 아니라, 잘못 무효화된 서명들을 유효서명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소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 Gleason(PFAS쪽) 대 Secretary of California(캘리포니아국무장관 Debra Bowen) 이라는 이름으

로 더 이상 조사하는 것을 그만두라. 지금의 소송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너희들만 고생할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무례하고 위협적일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시민들을 무시하는 그들의 생각과 발언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서명은 곧 시민의 생각과 의지인데, 시민들이 시간 들여 서명한 것을 그렇게 쉽게 박탈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세금을 받아서 살림을 하는 캘리포니아 국무장관과 캘리포니아 국민변호사라는 것이 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Debra Bowen과 AB1266 측의 방해 이유**

PFAS는 지난 한달 동안 58개의 카운티들을 직접 방문해서 AB1266가 무서워할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너무 쉽게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친 130,000여개가 넘는 무효화된 서명 중에서 매우 많은 서명들이 잘못 무효화 됐다는 것을 저희가 샘플 재검토 하는 중에도 수두룩 직접 목격한 한달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무효화 된 서명들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법정에서 손을 들어준다면, Debra Bowen측 사람들이 양심껏 일을 한다면, 우리자녀들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성으로 남성으로서 서로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안전하게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4월 21일 결과를 볼

때, 다시 말하면 유효화 시키려고 청원서를 본 게 아니라, 무효화 시킬 준비를 하고 서명들을 검토하니 조금만 글자나 줄이 빗나가도 다 무효화시킨 격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을 뚫고 PFAS에서는 58개 카운티에서 서명들을 재검토했는데, 이렇게 법적 싸움까지 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SB48(친동성애 교육이 교과서에 들어가는 것을 폐지 하려던 서명운동) 때와 Class Act와 Parental Rights(부모의 권리) 서명 운동 때도 이와 같이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기독교 선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4월 21일에 있었던 법정 결과를 볼 때도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TVNEXT처럼 처음으로 서명운동으로 뛰는 팀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심적인 의심은 들었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정치인들이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잘못 치우쳐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아픈 결과를 가지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실하게 여부를 따지고 분석하여 정치인들의 권력 앞에 두려워 물러나지 않고 법정까지 돌입하게 된 것이며, 지금 PFAS팀은 저희 자녀들과 다음세대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Bowen측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 증거물들을 넘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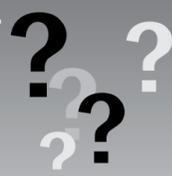
그 카운티들은 Butte, Calaveras, Fresno, Kings, Madera, Plumas, San Mateo, Santa Clara, Santa Cruz, Solano, Stanislaus, Sutter, Tulare, Yolo, Yuba이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카운티들이 Bowen의 손을 잡을지 모릅니다.

**기도제목**

-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사람들의 양심이 살아있도록.
- Debra Bowen과 캘리포니아의 정치인들이(AB1266 지지) 자신의 정치적 권력으로 나머지 카운티들에게 정치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 행여 끼치더라도 각 카운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권력에 굴하지 않도록.
- 지금 상급법원으로 상소하기 위해 연장된 이 소송을 이끌어가고 있는 PFAS 팀의 변호사 팀들(PJJ)과 리더들이 지치지 않도록.
- PFAS 법원팀들에게 필요한 후원금이 충분하도록.
- 상급법정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지금 캘리포니아 하/상급 법원들은 거의 다 친동성애/자유주의/반기독교적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에 이 기도는 치열한 영적전쟁 기도입니다.
- ▲PFAS 변호사팀 후원문의: TVNEXT.org@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이번에 세월호의 좌초된 사건을 통해 수많은 어린생명들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어 야 할 뼈아픈 교훈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장례식에 고인의 명복을 빌니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기독교인들도 사용해도 되는지요?  
- LA에서 이 집사 -

**A:** 저도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눈물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연어 야 할 교훈이라면 첫째, 기본기를 충실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해줍니다. 이번에 바다에 침몰된 세월호도 한국에서 유람선으로서는 가장 큰 배였습니다. 그런데 선박회사가 돈을 더 벌기 위해 배의 구조도 제멋대로 고치고 더 많은 짐을 싣고 더 많은 승객인원을 늘려 무리하게 항해하였습니다. 이번 사고의 문제는 배의 구조도 그렇고 선장이나 승무원들도 안전수칙에 대한 기본기가 제대로 훈련이 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바로 대응하지 못하여 큰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평소에도 기본기를 충실히 훈련받는 것이 얼

**기본기 충실이 우선... '명복'은 불교용어**

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우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외적 성장과 외양보다도 내적인 기본기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충실해야 합니다.

둘째, 희생정신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배를 타는 사람들은 “버큰 헤드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1912년 타이타닉침몰사고 이전에 가장 큰 해상사고가 1852년에 일어난 영국 군함 “버큰 헤드의 침몰”인데 이 배가 사병들과 가족들을 태우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가다가 2월 26일 암초에 부딪쳐 침몰하는데 구명정은 단지 3척입니다. 이때 배의 함장이 내린 명령은 “여자와 어린이가 먼저”였습니다. 부녀자들이 구명정을 타는 동안 수백명의 병사들은 갑판에서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병식을 하듯 의연하게 서서 침몰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선장과 병사들의 영웅적인 자제력과 용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항해 중에 재난이 생기면 “버큰 헤드정신”처럼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대피시켜야 한다는 좋은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912년 4월 빙산에 충돌해 1500여명이 사망한 타이타닉호의 선장과 승무원들은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먼저 대피시켰고 약사들도 배가 가리았을 때까지 찬송가를 연주하며 자기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 희생정신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의 장례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입니다. 명복(冥福)이라는 것은 불교의 용어로서 불교신자가 죽은 후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곳을 명부(冥府)라고 하는데 거기서 받게 되는 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죽은 자들이 복된 심판을 받아 극락에 가게 되기를 원한다는 불교의 내세관에서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용어를 그리스도인들이 따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족들에게 사용할 말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생과 소망으로 슬픔을 이겨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자 ”**

**성령 대 부흥성회**

성령으로 회개로 주님 맞을 준비하자 알라바마 순복음교회는 성령 대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오순절에 임하였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각 영혼들 마음에 운행하며 놀린 자가 회복되고 갇힌자가 자유함을 얻고 상한자와 고통하는자는 고침받는 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영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오니 부디 오시어 성령으로 충만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김진규 목사.

부흥성회 일정		
6월 9일(월)	저녁 7시	
6월 10일(화)	새벽 5시, 낮 오전 10시, 저녁 7시	
6월 11일(수)	새벽 5시, 낮 오전 10시, 저녁 7시	
6월 12일(목)	새벽 5시	

- 일 시: 2014년 6월 9일(월)~11일(목) 아침까지
- 장 소: 알라바마 순복음교회  
3331 Rucker Blvd, Enterprise AL 36330  
전화(334)347-1675, (334)475-9933(CP)



담임 김진규 목사

주관 : 알라바마 순복음 교회  
Alabama Full Gospel Church

후원 : 미주오순절연합총회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아프가니스탄의 난갈라미(NANGALAMI)



20세기 시작될 때까지 아프가니스탄 땅은 주로 여러 종족들이 연합해 통치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항하는 우두머리들과 외국 정부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제하려 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은 독립국이지만 내전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70개 이상의 종족

들이 살고 있으며, 난갈라미(그랑 갈리로도 불림)족은 아프가니스탄 전체 인구의 1% 미만인 소수다. 난갈라미족이 코나르(Konar) 강 남쪽 기슭의 그랑갈리와 제미야키, 두 마을에 산다는 것 외에는 난갈라미족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 지역의 기후는 온화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기에 적당하게 강우가 충분하다. 난갈라미라는 이름이 종족명에 따라 마을명이 붙여진 것인지, 마을명에 따라 종족명이 붙여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난갈라미족의 언어는 그랑갈리어라고 불리며, 이 언어는 인도-이란 언어군

에 속한다. 삶의 모습 아프가니스탄의 경제는 본래 농업과 목축에 기초한다. 산악 지역에는 비옥한 땅이 거의 없는 반면 좋은 목초지가 있다. 그 결과 난갈라미족은 유목적인 생활방식을 취해 계절을 따라 가축 떼를 데리고 이동한다. 이 지역의 다른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난갈라미족은 기능공들인 하위 계층과 토지소유자들인 상위 계층 두 계층으로 나뉘어질 것이다. 기능공들은 주로 나무공예품, 직조, 제철, 도기, 바구니 등을 만들며, 이 물건들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다. 시장(Bazaar)은 농산품과 기능품을 교환하는 중요한 장소가 된다. 전통적인 수공업 품들은 널리 보급되었으며, 질이 좋고 매우 정교하다.

난갈라미 사회의 기본 단위는 농사짓는 땅과 목초지로 둘러싸인 촌락이다. 토지는 가족의 남자 우두머리의 소유이며, 목초지 사용의 권리는 그의 아들에게 상속된다. 협력은 혈족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친척들은 위기나 도움이 필요한 때에 서로서로 돕는다. 일반적으로 가족들은 언덕의 경사면을 따라 세우되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시내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가족의 크기는 그 가족의 부에 따라 달라진다. 집안은 돌담으로 생활을 위한 곳과 가축을 위한 곳,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며, 집안 소유물들은 돌담으로 둘러싸게 된다. 계층 구별 외에도 난갈라미족은 성에 따라 노동이 구별된다.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 식사를 준비하는데 나름의 일을 해야만 한다. 여자들은 빵을 준비하는데,

빵은 농사에 대한 책임을 상징한다. 남자들은 낙농의 소산을 제공해야만 하고, 이는 가족을 치는 책임을 상징한다. 신앙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이슬람교가 소개된 것은 7세기경 아랍의 침입 때였다. 9세기까지 다르와지족이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오늘날에는 다르와지족의 100%가 수니파 이슬람교도들이며,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없다. 다르와지족은 이슬람교도로서 유일한 알라를 믿으며, 매일 기도하고, 자신을 배풀고, 금식하고, 가능하다면 메카로의 성지순례를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아프가니스탄의 다수 종족들 간의 관계는 갈등으로 점철되었다. 역사적으로 좀 더 강했던 종족들

이 약한 종족들을 지배하고자 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누리스타니족은 강하게 저항했다. 소련의 침공과 계속되는 내전은 아프가니스탄을 파괴시켰다. 남아있는 사회적 구조는 거의 없으며, 많은 이들이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올라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갔다.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사역하는 선교단체들이 있지만,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선교단체 관련자들이 철수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난갈라미족을 위해 사역하는 단체는 없다. 난갈라미족에게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전에 무엇보다도 내전이 끝나야만 할 것이다. 계속적인 열정적 기도도 우리는 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르와지족을 섬기고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보코하람 납치여학생 200명, 대부분 크리스천

나이지리아의 극단적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이 납치한 여학생 200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인인 것으로 알려져 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요청된다.



나이지리아기독교협회(CAN)는 지난 4일 165명의 기독교인 여학생들이 납치됐으며 이들 대부분 '형제교단(the Church of the Brethren)' 소속 교회에 다닌다고 밝혔다. CAN은 앞서 3일에는 여학생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나이지리아 전체 교회에 기도와 금식을 선포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코하람은 지난달 14일 동북부 치복시(市)의 한 크리스천 중학교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여학생 276명을 납치했고 이중 50여 명만 탈출했다. 보코하람은 5일이 납치가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학생들을 노예 매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납치된 지 2주가 넘는 상태에서 이미 여학생들이 무슬림 남성과 결혼하거나 강제 개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해받는 교회 지원단체인 바나바스에이드는 노예 매매와 관련해 "카메룬 민병대가 납치된 여학생 일부를 12달래에 거래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여학생들이 납치된 치복은 이슬람교가 우세한 보르노 주의 몇 안 되는 기독교인 마을이다. 월드워치모니터(WWM)에 따르면 보르노 주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코하람의 악행이 끊이지 않았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유교·강간(55%) 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살해(25%), 고문(15%), 가옥 파괴(5%), 강제 개종(5%) 순이었다.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도입을 주장해 5년간 40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나 정부 관계자 등을 살해했다. 보코하람은 '서양식 교육은 죄악'이라는 뜻이다.

공화, 민주에 20년래 최대 리드...4%P 앞서

미국 중간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표

심이 공화당으로 기울었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간지 USA 투데이는 지난달 23-27일 퓨리서치센터와 함께 성인 1천501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상 대결에서 공화당은 47%로 민주당(43%)에 4%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보도했다.



'오늘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당 후보(하원의원)에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다. 현 시점에서 공화당의 4% 포인트 차 리드는 20년래 최대치여서 이번 추세가 선거 때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공화당은 1994년 같은 시기 해당 조사에서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45% 대 47%로 2% 포인트 차로 뒤졌지만 11월 압승을 거두며 의회권력을 장악했다. 신문은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은 경제 불안과 보험개혁에 관한 회의감, 미지근한 대통령 지지율이란 3중고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선 2016년 선출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추구했으면 바란다는 응답이 65%(반대 30%)를 기록해 변화를 원하는 민심이 강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4%로 이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

한편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건강보험개혁법안, 일명 오바마케어 실시 후 분기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지출하는 비용이 1980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에 따르면 올 1.4분기 건강보험비용 상승률은 9.9%였다. 같은 분기 지난해에는 1.3%, 2012년엔 4.9% 올랐다.

'적극 투표' 젊은 층 감소...민주당 '비상'

미국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전통적인 지지 세력인 젊은 층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시사주간지 USNews & 월드리포트는 하버드대학 정치학연구소(이하 연구소)

의 여론 조사를 인용해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밝힌 젊은 층이 감소했다고 5일 전했다. 여론 조사에 응한 18-29세 청년층 중 적극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25% 미만으로 5개월 전 33%보다 더 떨어졌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젊은 유권자가 투표에 더 열성인 것도 민주당에 악재다. 2012년 대선에서 공화당 밋 롬니 후보를 찍은 젊은 층 44%가 올해 중간선거에서도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힌 데 반해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선택한 청년층 중 35%만 투표 의사를 보였다.

연구소는 현실 정치에 환멸을 느낀 젊은 유권자가 투표를 의면하는 현상이 가속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현재 권력 지형의 변화를 바라며 투표로 분노를 표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하원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중진의 원들의 출마 포기과 여론 악화로 중간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수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상원마저 공화당에 내주면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간 정책 수행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는 만큼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연구소는 이와 별도로 젊은 층의 오바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개월 전 41%에서 47%로 올랐다고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 핵심 과제로 내건 최저임금 인상, 성별 임금 격차 및 소득 불평등 해소와 같은 진보적 이슈가 젊은 층의 시선을 사로잡은 덕분이다. 그러나 젊은 층의 이러한 관심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세월호참사...백악관 사이트에 청원

미국 백악관 청원사이트인 '위더피플'(We the People)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원 두건이 잇따라 올라왔다. 지난달 25일자로 게시된 청원은 '여객선 참사 이후 교회에 대한 공격을 중지해줄 것을 한국 정부와 언론에 촉구한다'는 제목이 붙어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한다고 밝힌 청원자는 여객선 침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배의 결함과 승무원들의 부적절한 행동, 그리고 결과적으로 승객들이 탈출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

졌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언론은 비정상적으로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회 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분노의 대상을 재난 본부와 해결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전례없이 교회를 공개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교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으로 촉구했다.

최근 일명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에 대한 한국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청원으로 보인다. 이 청원에 대해 현지시간으로 5일 오후 10시 현재까지 1천842명이 서명했다. 백악관은 청원이 올라온 한달내에 서명자가 10만명이 넘으면 답변을 해야 한다.

이 청원이 게시된 직후 유사한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권고'(Advice) 취지의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에는 645명이 서명한 상태다.

중국, 미국의 종교자유 보고서에 반발

중국 정부는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최근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을 '특별관심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진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의 문답 형식의 논평에서 "최근 몇년간 미국의 이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의 중국에 관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가득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편견을 버리고 종교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중국인(공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중국 인민은 법에 따라 종교 신앙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동시에 중국 법률은 누구를 막론하고 종교를 빌미로 위법한 범죄활동을 하는 것도 허용치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독립적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14년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을 '종교자유 탄압 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4년 5월 본교 강의안내

May 12-16(5월 12 -16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om Stallter

May 19-23(5월 19-23일) DI 8280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PM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졸업식 안내

일시: 2014년 5월 10일(토) 오전 9시 장소: 본교 Manahan Orthopaedic Capital Center

졸업식 리허설(Graduation Rehearsal) O 일시: 2014년 5월 9일(금) 오전 8시 30분 O 장소: 졸업식 장소 (졸업예정자는 전원 참석해야 하며 정장차림을 해야 함)

총장주관 졸업만찬(President's Luncheon) O 일시: 2014년 5월 9일(금) 12:00-1:30pm O 장소: 웨스트민스터 홀(Westminster Hall)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30)

정 성 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 도전과 응전(III)-금주법과 사회보장법

카이퍼는 수상으로서 많은 일을 했다. 좌파 야당들 중에는 논리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정치철학적으로나 연설로나 카이퍼를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진보 좌파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카이퍼 내각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욕설과 비난의 화살을 최대한 쏘았다. 그리고 카이퍼는 좌파들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카이퍼를 이겨낼 방법이 없었고 논리도 없었다. 그러나 카이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 원리가 승리할 것과 국민의 편에서 서서 그들의 복리와 복지를 위해서 힘 있게 투쟁했다.

학교 즉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했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들에게 국립학교 선생들이 받고 있는 연금제도의 특혜를 주었다. 그리고 하고 노동부 계약과 노동부 창설을 위한 규정, 산업에서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

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이퍼는 노동조직은 바람직할 뿐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동조직이 모든 정치적 색채를 배제할 수 있는 풍부한 자기 통제력과 자기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노

들은 노조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노조를 이용하고 노조의 성공과 진전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카이퍼의 수상재임 시에 또 하나의 성과는 음주에 대한 입법 투쟁이었다. 왜 카이퍼 수상은 그토록 주류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였는지를 그 당시의 국내외의 배경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미국과 유럽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접어들면서 퇴폐적인 사회 현상이 많았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곳곳마다 바와 선술집이 많았다. 그리고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등에서 쾌락을 탐닉하는 세속주의 인생관이 판을 쳤다. 아마도 그와 같은 현상은 19세기 일본주의, 페락주의, 세속주의 사상에 연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암스테르담은 많은 환락가들이 생겨나고 노름, 폭력, 도둑질, 음주가 유행했고 알코올 중독과 성적 타락이 도를 넘었다. 따라서 밤의 환락과 음주 문제는 빈곤, 불안양, 가정불화, 노동착취, 사회적 혼란이 따랐다. 가치관의 세속화는 구체적으로 삶의 전 영역에 일어났다. 특히 화란사람들은 음주문제에 관한 타의 추종을 허락지 않았다. 알코올 중독자일수록 도박에 탐닉하고 성경의 원리 삶에만 몰입하게 된다.

카이퍼 수상은 이런 사회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류법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카이퍼는 주장하기를 알코올중독이 육체적, 정신적, 윤리적, 감정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회

적 국민들의 정신적 삶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카이퍼는 바를 "술주정뱅이 성전(Drunksards temple)"이라고 했고 "사회를 타락시키는 암흑의 터널(Dark Tunnel to Social Corruption)"이라고 비판했다. 카이퍼는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통과시킴으로써 화란국민의 도덕적이고 청교도적 삶의 회복을 하려고 했다.

카이퍼는 수상으로 재임하면서 그는 역대의 어느 정부, 어느 내각에도 해낼 수 없었던 새로운 법안들과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카이퍼의 기본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순종하고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실현에 옮겼다. 그리고 당시의 계몽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사상가들과의 논쟁에서 항상 승리했다. 이는 또한 반대당으로부터 노골적인 비난과 비판 그리고 도전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카이퍼는 명석한 논리와 불같은 열정의 대중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지질 줄 모르는 열정과 연설로 좌파세력들의 도전에 대해서 명쾌한 응전을 했고 그리고 승리했다. 그래서 카이퍼는 위대한 기독교 정치가이자 전략가였다. (다음호에 계속)

## 노동자보상 범위확대·사회적 약자위한 보험제 실행 20세기초 퇴폐적 사회현상 해결책으로 금주법 통과

자 즉 고아와 과부 장애자에 대한 보험제를 실시하는 안을 내었다. 카이퍼는 사회정의의 위해서 보험 제도는 모든 화란인이 대상이 되

도록 함에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주입시키고 노동조합을 오염시키는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 좌파 세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서인가 사람들은 술과 여자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고 도덕적인 해이가 날로 더했다. 그래서 당시의 대도시 예컨대 뉴욕, 런던, 파리,

적 해악이라고 했다. 그로 말미암아 빈곤이 개선되지 않고 질병과 불법이 성하게 된다고 했다. 그래서 카이퍼는 음주의 해악으로부

### 가정사역 칼럼

## 외로움에 대처하려면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5월은 가정의 달로 이런 저런 정을 위한 행사들을 계획한다. 그러나 싱글패밀리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달이기도하다. 홀로 있는 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 중의 하나가 외로움일 것이다. 외로움의 원인으로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멀어진 것 뿐만 아니라 커플중심의 문화인 현 시대를 살고 있기에 외로움은 더욱 짙을 수가 있다. 또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지나치게 관여하기에 이런

저런 말로 상처를 받거나 스스로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받으며 거절감을 느끼는 것도 있을 것이다.

홀로 서는 법 배우기

1. 홀로 서는 것을 배우야 한다. 예수님도 홀로 계신 시간이 있었고 (40일 금식기도, 홀로 새벽미명에 기도) 복음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광야 3년간의 혼자의 시간이 있었

다. 외로움의 시간에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외로움의 학교에서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훈들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2. 혼자 사는 동안 최대의 훈련을 받으라. 혼자 사는 동안을 의미있게 보내면, 훨씬 더 준비되고 훈련됨으

로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다. 건전한 가치관을 갖도록 자기훈련을 하고, 영성이 개발되도록 노력하라.

2. 적극적으로 좋은 동성친구와 연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많은 필요들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줄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계시다. 그런데 친구는 집에 가만히 머물러 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겸손히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확장시켜야 한다.
3.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섬기라. 단,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특히 헤어짐의 아픔에서 치유가 덜 된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면 상처까지 그대로 갖고 가게 되고 그 상처가 새로운 관계의 기본으로 깔리게 되기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4. 새로운 관계(만남)를 가질 준비를 하라. 그렇다면 "언제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될까?" 다음의 내용을 제안하고 싶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된 때는 그보다 현재에 더욱 충실하게 살고 있을 때 스우울증이 찾아오는 빈도가 낮아졌을 때 그의 탁이나 구출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의 외로움이 아닌 자립하는 법을 습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을 때 스내 개인적인 약점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스고난의 시기를 감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약1:2-4) 스관계에 대한 책임을 질 의지가 있을 때 스전에 사귀던 사람에 대한 감정이 정리되었을 경우 스전과 스터너와 헤어짐의 관계가 확정된 때(전 배우자와 화해의 여지가 있을 때는 데이트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스도덕적인 성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을 때(독신자의 성을 참고하라)

이혼문제의 한 전문가가 "결혼기간 4년에 대해 1년의 치유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년간 살펴본 바로는 충분한 치유의 시간을 갖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다리지 않는다면 치유를 받을 수 없으며 결국 정말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아름다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 목양칼럼

(4면에서 계속)

그는 강력했던 로마제국이 점점 약해져 가는 현실의 문제를 내부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었는지 기독교를 향해 공격의 눈을 돌렸다는 그의 사상의 편린이었던 것인가? 로마가 불안해져가는 원인이 기독교 때문이 아닐까하는 노파심 때문이었

다. 그는 로마의 다신론을 섬겼던 자로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았다. 다른 종교인들은 위협하면 물러서지만 기독교인들은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다. 이런 행동들이 황제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다. 더 나아가서 든든했던 로마제국의 사방에서 균열의 굉음이 들려왔고, 파르티아를 물리치고 의기양양하게 개선한 장병들은

역병을 옮겨줌으로 국민은 큰 역병에 시달려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역병과 덩달아 가뭄, 기근으로 인한 흉작은 그 피해가 굉장했다. 이런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제국을 혼란케 하는 이유를 크리스천들 때문이라고 여겼다. 국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방 총독들에게 명령을 내려 크리스천들을 심하게 다

루도록 명령을 내렸다. 특히 리용과 비엔나의 교인들을 타치는 대로 고문하고 죽이도록 했고, 로마시민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목을 베어 죽이게 했고 시민권이 없는 신자들에게는 짐승의 먹이가 되게 했다. 심지어 시체를 거두어 장례조차 지내지 못하게 했다. 불란서 리용에서는 사방 5인치 정도의 창살이 박혀있는 의사 위에 기독교인들이 강제로 앉혀 피가 줄줄 흘러내리게 하고 그 아래에 숯불을 피워 고통 중에 죽여가게 했다.

황제는 폼박의 무력적 수단을 통해 개종시키려 했지만 그들은 망설임 없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고백하고 순교의 거룩한 길을 선택하여 황제를 분노케 만들었다. 이런 순교의 빨간 피로 땅을 흥건하게 적신 그 땅에서 1170년에 왈도(Waldo)가 태어났고, 이곳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개혁의 지도자 칼뱅(Calvin)이 태어나도록 섭리하신 게 아닐까?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저스틴(Justinus, 로마의 첫 변증가), 폰티누스(Pontinus, 리용의 감독), 블렌디나(Blandina)를 순교의 제물이 되게 했다. 그의 기마상은 지금도 로마 시청의 광장에 햇빛을 받으며 우울한 모습으로 서있다. 기독교를 폼박한 것은 내 생애의 최대의 실수였다고 자인하는 듯이 말이다.

#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186. 창조론의 기초(36) 창세기

건물의 안정성은 기초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기초는 어디에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혹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완전한 창조와 인간의 반역 사건에 따른 타락에 있다. 그러므로 창조와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기초다. 그런데 최근 이 근본을 뒤엎는 '이론'들이, 신학교와 교회에서, '진짜 역사'보다

다. 창조 첫째 날 빛과 창조 넷째 날 해, 달, 별들; 창조 둘째 날 하늘과 창조 다섯째 날 공중을 나는 새; 창조 셋째 날 물과 식물들 그리고 창조 여섯째 날 땅 위의 동물들과 사람이 내용적으로 뗏구를 이루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시라고 주장한다. 이 설명에 혹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창세기 1장을 그대로 믿을 믿음이 없는 데 뗏구가 그렇듯하게 맞아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시라고 하는 주장에는 문제가 많다. 창세기 1장이 시가 아니라 평범한 서술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구를 이루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내부구조를 가진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의 '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구사 능력과 설계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할 것이다. 더욱이 창세기 1장의 동사들을 분석해보면 시에 주로 사용되는 현재형이 아니라 역사 기술에 사용하는 과거형 동사들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99.9% 시가 아니다(Thousands not billions, Master Books). 창세기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창세기는 실제 역사를 평범한 문체로 기술한 것이다.

### 창세기는 모든 법의 근거다.

시민법이든지 도덕법이든지 무슨 법이든지 이 법들은 우리의 자유의 한계를 정하고 어겼을 때는 벌을 주게 된다. 첫 번째 법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것으로 창세기에 나온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는 안된다는 법이었다. 우리가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반역적인 아담으로부터 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이 필요하다. 창세기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법들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창세기가 기록된 대로 사실이 아

므로서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누리지 못하는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이것이 살인이 근본적으로 부도덕한 이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모든 동물과 확실히 구별된 존재임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창세기 1장은 모든 생명체들이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10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생명체들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에 대한 근거는 창세기다. 성경은 결혼을 말할 때 한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를 때어서 허리를 만들고 그 돌이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며 이혼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마19:4-6).

### 휴식과 예배의 근거가 창세기에 있다.

이상하게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7일/주의 시간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이 주기는 천문학적인 것도 아니고 10개의 손가락으로도 셀 수 있는 아주 불편한 시간 단위다. 7일 7일의 주기는 어디서 왔을까?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를 마치고 7일째 안식하셨다. 출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시립대학교 교수)

## 나를 위한 밥짓기 변명혜

팔부자집 막내로 자라서 부역일이라면 설거지 가끔 하는 것 외에는 별로 해본 적 없이 대학졸업 후 엉겁결에(?) 결혼을 했다. 신혼시절에 나름대로 열심히 요리책을 들여다보며 한참 걸려서 밥을 해놓으면 남편은 밥상을 보며 "이런 것 말고 먹을 것 좀 해줄래?"라고 말해서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시간 많이 걸려서 예쁘게, 보기 좋게 만든 음식보다는 자기 입에 맞는 찌개하나면 좋겠다는 뜻이었다. 그 후로는 남편이 계를 좋아하니깐 겨울에는 계찌개, 날씨가 흐린 날은 얼큰한 콩나물 국밥 등 그런대로 남편 식성에 맞는 음식은 웬만큼 잘하게 되었다. 그래도 은근히 입이 까다로운 남편 때문에 반찬에 신경이 쓰여서 밥할 시간이 되면 "오늘은 또 무엇을 만들어야 하나" 고민하던 생각이 난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아이들을 잘 챙겨주어야 한다는 마음에 공부하느라 바빠도 음식에는 정성을 쏟는 편이었다. 그래서인지 어릴 적 아이들이 써주는 Mother's Day카드에 자주 등장하던 문구 중 하나는 엄마가 음식을 잘 챙겨주어서 고맙다는 말이었다. 그런데 작년에 막내가 뉴욕으로 대학원을 가면서 어느새 내 인생의 사이클에도 변동지가 찾아왔다. 일주일 중에 받은 집에 머물고 나머지 반은 친구들하고 렌트한 아파트에서 지내는 둘째아들이 집에서 점심을 먹는 경우와, 주말에 집에 다녀오느라 딸에게 밥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밥해줄 일이 별로 없게 되었다. 가끔씩은 가까이 이웃들을 식사에 초대하기도 했었지만 작년에 작은 수술을 받은 후 부터는 쉽게 피곤해서 이웃들 부르

는 일도 뜸해졌다. 그렇게 대부분 경우에 혼자 식사를 하다 보니 나를 위해서 반찬을 만드는 일은 거의 안하게 된다. 주중에는 주말에 딸 주려고 했던 반찬 남은 것을 적당히 먹는다. 혼자 먹어도 이쁜 그릇에 제대로 담아먹어야 한다는 원칙은 지키지만 나 먹겠다고 생선조림을 한다면 찌개를 끓인다든지 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 너무 영양가 없게 먹는 것이 아닌가 싶으면 계란후라이나 하나 더 먹든지 하면서 정말 때우는 수준으로 밥을 먹는 것이다. 여러 일로 바쁜 가운데 반찬 만드느라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 혼자 간단하게 먹으면 되니까 시간도, 에너지도 절약되어서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제 나 혼자 먹겠다고 반찬을 만들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존재하도록 지음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것 같다.

이제 나를 위해 밥을 지어야 할 때가 된 이 시간에 많은 생각을 한다. 더불어 살며 시간이나 재능, 물질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결국에는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 그리고 그 함께함이 우리 삶에 활력을 준다는 것 등이다. 또 가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밥을 지을 뿐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본다. 나를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몇 주 후면 막내가 방학을 맞아 집에 올테고 그러면 또 막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느라 바빠지겠지만 벌써 그 날이 기다려진다.

이메일: lpyun@apu.edu

## 창세기는 역사... 폐기 왜곡하면 복음은 구름 잡는 소리돼 법과 인간존엄성, 휴식과 예배, 모든 주요 근거 들어있어

훨씬 더 많이 가르쳐지고 있다. 최근에 미국과 한국 교회의 안정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 이상한 일이다.

성경이 없다면 아무리 똑똑하고 연구를 많이 한 학자라 해도 인류의 기원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으며,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에 살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만 이 세상이 맨 처음에 완벽했다는 사실-그 창조는 무한히 거룩하시고 가장 사람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던 "아주 좋은(very good)" 창조였음을 알 수 있다. 현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며 그들로부터 타락한 죄성을 물려받고 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버리거나 왜곡하면 복음은, 이치에 맞지 않는, 구름 잡는 소리가 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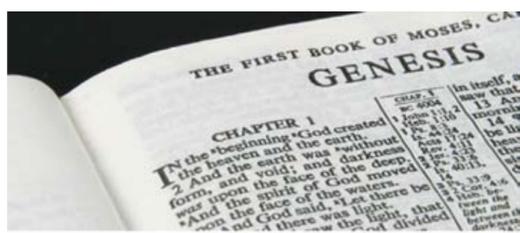
### 창세기는 역사다.

혹자는 창세기 1장이 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형적인 한국의 시나 영어의 시는 형식적으로도 리듬과 각운을 맞추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의 시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상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 내용적인 뗏구가 있다는 것이

있다. 창조 과정은 지구를 준비하여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다(사 45:18). 그러나 위 설명(구조가설)에는 가장 중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다. 또 다섯째 날 창조된 물들에 사는 물고기는 둘째 날의 물보다 다섯째 날 창조된 바다(물들이 모인 곳)가 더 적합하다. 둘째 날의 물과 첫째 날의 물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섯째 날의 물고기와 좋은 뗏구를 이루지 않는다. 셋째 날 창조된 식물들은 다섯째 날 창조된 새들과 여섯째 날 창조된 동물들과 사람들 모두의 먹이가 되므로 이것도 제대로 뗏

나라면 성경의 어느 구절도 사실로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므로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 아주 좋았던 창조와 아담과 하와의 타락 등 창세기의 기록이 사실이 아니라면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신 죄 사람과 구원의 약속들도 의미가 없다. 창세기의 반역 사건이 없으면 십자가는 왜 필요하며 구원은 왜 필요한지 이유를 알 수 없게 된다.

창세기는 인간 존엄성의 근거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완전히 다른 생명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복음과 교회의 근거

이 역사적인 창세기를 달리 해석해 보려는 마음은 성경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수십억 년의 지구 나이에 근거한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애굽기 20장에서 일주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창조주관을 기념하여 지키며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십계명의 제 4계명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 놓고 쉬면서 창조자를 예배하게 된 것이다(주일은 창조자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마치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창세기에는 가장 중요한 근거들이 들어 있다. 거의 모든 물질적, 비물질적인 것들의 기원이 창세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도 복음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역사적인 창세기를 달리 해석해 보려는 마음은, 성경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수십억 년의 지구 나이에 근거한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수십억 년도 없고 진화도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지구는 진화론 시대다.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성경으로 돌아와 만들어낸 하나님(우상)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워야 교회가 살고 나와 자녀들이 살 수 있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기간 2014년 4월 24일(목, 저녁) ~ 5월 8일(목, 저녁)

시간 새벽 5:30, 아침 10:30, 저녁 7:30



한국 CBS-TV "세상을 이기는 지혜 - 솔로몬" 강의 (2013년 7-8월, 11-12월 방영)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신학교원(인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GST(신학생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  
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  
미국 ORU(D.Min)  
www.galmelsan.or.kr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다시보기 : www.cbs.co.kr/tv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cbssolomon  
■ 트위터 : www.twitter.com/cbssolomon  
■ 유튜브 : www.youtube.com/cbssolomontv

## 2014년 월별 부흥성회 일정

<b>4 April</b>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b>5 May</b>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b>6 June</b>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b>7 July</b>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b>8 August</b>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b>9 September</b>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b>10 October</b>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	---	--	---	--	--



목회서신

나 뿐인 사람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세월호 침몰 사고에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 다른 사람들을 구한 숨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맨 마지막이다. 너희 친구들 다 구해주고 나중에 갈게"하며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여승무원 고 박지영 씨, 아이들 구하러 가야 한다는 마지막 통화를 하고 침몰하는 배에 끝까지 남아서 승객들을 구출하다 숨진

고 양대홍 사무장, 학생들을 대피시키다가 숨진 고 남윤철 교사와 고 최혜정 교사, 친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준 고 정자웅 군, 생업을 접고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민간 다이버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온 많은 자원 봉사자들... 이들은 모두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한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를 분노케 한 것은 이들과는 정반대로 다른 사람의 목숨은 전혀 안중에 없었던, '나'만 생각한 나쁜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박노해 시인은 '나쁜 사람'을 '나 뿐인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남을 생각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사

람, 남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를 주는 사람,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고 사는 이기적인 '나 뿐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나 뿐인 사람'이 만든 인재(人災)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수많은 승객들을 버리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배를 버린 선장, 항해사, 조타수, 그리고 그 외의 승무원들, 수지타산을 위해 배의 설계를 변경함으로 복원력을 상실하게 만든 사람들, 여객선 운항 규정을 무시한 승무원들, 돈에 눈이 멀어 규정보다 화물을 더 실은 항만 사람들, 세월호의 잦은 고장과 이상 징후에 대한 보고를 무시한 청해진 해운의 실무자들, 직원들의 안전교육비로 1년에 고작 54만원을 쓴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소유주, 침몰 직후 거짓 문자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 유가족들을 사칭하여

성금을 거두거나 구호품을 훔친 사람들,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존자를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무능한 해경, 서로 봐주면서 이익만을 챙기는 비리와 부실의 뿌리인 관료(관료+파피아)들, 오보와 자극적인 보도로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힌 언론인들, 그리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황당무계한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 이들 모두 '나 뿐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더욱 제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은 저 자신도 같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그들처럼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탐문주의에 빠진 현대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 목회 세습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탐문'이라며 큰소리치는 목회자들, 교회 직분을 남발하고, 불투명한 재정

집행, 권위주의와 형식주의, 그리고 무분별한 성장 지상주의에 빠진 교회들, 지역 교회들에 무관심한 대형교회들,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고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성도들, 재정 비리의 선교사들, 자격 미달의 신학교에서 자격 미달 목회자를 배출하는 무책임한 교수들, 그리고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세 모녀 자살'을 방치한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로 '나 뿐인 사람'들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세월호가 갑자기 그리고 순식간에 침몰하듯 '나 뿐인 사람', '나 뿐인 교회', '나 뿐인 나라'가 갑자기 속수무책으로 침몰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고를 통하여 나만 생각하는 '나 뿐인 사람'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세월을 아끼며 살라고 주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PCA-CKC 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PCA한인교협 신임총회장에 민경엽 목사

제17회 총회 및 수련회, 강사 박은조 목사 초청

미국장로회 한인교회협의회(PCAC-CKC) 신임 총회장에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담임)가 선출됐다. PCA-CKC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3박4일간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 소재한 라이프크릭교회(담임 양성일 목사)에서 제17회 총회 및 수련회를 개최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주제로 미국장로회 산하 8개 언어노회에서 목사와 사모 그리고 장로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저녁 예배에는 강사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담임)가 첫째 날 "위대한 교회의 출발점," 둘째 날 "하나님의 가정,"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

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셋째 날 오전에는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강의를 인도했다. 정기총회는 4월 30일 오후 1시에 시작돼 캘리포니아 옐로스카운티 소재 나침반 교회 민경엽 목사가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아울러 공천위원회가 공천한 임원들을 다음과 같이 승인했다. △부회장 김태권 목사(동부), 차세대 부회장 빌리 박 목사(동남부), 장로 부회장 전준홍 장로(서남) △총무 김성철 목사(수도) △부총무 이후찬 목사(동북) △서기 김상선 목사(서남) △부서기 박수현 목사(서북) △회계 신정훈 장로(서남) △부회계 남성우 목사(중부) △감사

나성근 목사(동남부) △감사 서정곤 목사(중부), 이구광 목사(남부). 신임회장 민경엽 목사는 지난 1년간 PCA-CKC을 위해 헌신적 섬김으로 봉사한 16회 회장 박신식 목사(포도원장교회 담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민경엽 목사는 폐회 예배 설교를 통해 "각 교회가 섬기는 교회의 이름값을 하자"고 권면했다. 한편 동일 장소에서 17명의 영어권 목회자들이 민 정 목사와 빌리 박 목사를 강사로 영어권 목회자 모임을 가졌다. (기사제공: PCA-CKC)



제30회 HYM청년연합집회가 선한목자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집회를 마치고 HYM스텝들과 집회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제30회 HYM 청년연합집회 강사 다니엘 뉴먼

남가주청년연합회(HYM 대표 더글러스김)가 주최한 제30회 HYM 청년연합집회가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선한목자장로교회(담임 고태형 목사)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마3:2-3)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다니엘 뉴먼 목사이(아주사피서픽대학교 한인목회학박사과정 디렉터)가 강사로 나서 집회주제와 동일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마3:2-3) 제목으로 설교했다. 뉴먼 목사는 첫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려면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회개는 지경의가 수반한 행위이며 죄에 대해 돌이키는 것이다. 죄

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다. 그러나 예수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게 은혜 받은 자가 나누는 것"이라 말했다. 뉴먼 목사는 둘째 날 "주님의 길을 준비하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며 계시록 1장 9-19절을 통해 예배에 대해 언급했다. 뉴먼 목사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예배는 반응적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

이다. 듣게 되고 돌이킨다. 그래서 반응한다. 하나님부름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명에 부응하는 청년들이 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집회는 첫날 최윤영 자매(세계대학교 찬양사역자), 둘째 날은 찬양밴드 더 헤븐스가 특송했으며, 베데스다순복음교회, 은혜한인교회, 오직예수교회 청년들로 구성된 HYM 청년연합찬양팀의 찬양인도, 그리고 고재석 목사(인랜드교회), 남성덕 목사(선한목자장로교회), 설성훈 목사(은혜한인교회) 등 청년공동체 담당목사가 개회기도 및 봉헌 기도 등으로 헌신했으며 전정화 목사(행복한교회)와 고태형 목사(선한목자장로교회)가 축도했다. 1999년에 시작돼 15년째 사역하고 있는 HYM의 30회 집회는 시종일관 은혜롭게 진행됐으며 집회장소를 찾은 청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과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교회 청년공동체의 출석률 저하현상과 지교회 청년부들의 자체 프로그램 등으로 인한 참여 저조로 교회들의 진정한 연합을 끌어낼 수 있도록 청년연합사역의 방향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준호 기자)



제21회 샌퍼난도 벨리 지역 한인교회 축구대회에 참가한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8개 팀 출전...1위 새생명비전교회

제21회 샌퍼난도벨리지역 한인교회 축구대회

제21회 샌퍼난도벨리지역 한인교회 축구대회가 지난 4월 26일 벨리지역 한인교회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Valencia Central Park 축구장에서 열렸다.

이날 정현철 회장과 임원들은 축구를 통해 벨리지역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했으며 출전한 각 선수들은 지교회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고 성도들의 열띤

응원은 뛰는 선수들의 격려하며 사기를 북돋았다. 축구대회 개최식은 총무 전승철 집사의 사회로 애국가 및 미국국가를 제창하고 이어 정현철 회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자를 애도하는 묵념과 내빈소개에 이어 서중운 목사(샌퍼난도벨리 교역자협의회 회장)가 "상을 얻을 때까지"(고전9:23-27) 제목으로 설교했다. 서 목사는 "상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법대로 경기하자. 두 번째는 주님이 제자들을 섬기듯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 선수들에게 아끼고 배려하며 경기에 임하자. 셋째는 주님이 허락해주시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경기 결과는 1위 새생명비전교회, 2위 벨리하나교회, 3위 주님의영광교회, 그리고 응원상은 AMCC교회가 받았다. (기사제공: 샌퍼난도벨리교역자협의회)



제28회 동요합창경연대회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주님의영광한국학교 어린이들이 노래하는 모습

동요합창경연대회 대상 베델한국학교

제28회, 백범일지 감상문 수상자도 선정

제28회 동요합창경연대회가 3일 오후 2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미주한국교회연합회(회장 박종리) 주최로 열려 영예의 대상에 베델한국학교가 차지했다. 총 14개 학교에서 출전해 지정곡과 자유곡 각각 1곡씩 총 28곡을 부

른 이번 행사는 한국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시간을 갖고 박종리 회장의 인사말과 이강원 이사장, 권영민 LA 한국교육원장이 각각 축사를 전했다. 다음은 제28회 동요합창경연대회 수상학교 명단이다. △대상(총영사상): 베델한국학교 △최우수상: 나성순복음한국학교

△우수상: 라스베이거스선사한국학교, 한얼큰사랑한국학교 △화합상: 인랜드한국학교, 나성열린문한국학교 △인기상: 샌디에고소망한국학교, 나성영락한국학교 △장려상: 감사한국학교, 금란한국학교, 아름다운한국학교, 주님의영광한국학교, 코로나감사한국학교, ANC 은누리한국학교. 한편 LA총영사관, LA한국교육원, 미주동요사랑회, 백범김구재단 등이 공동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히 제3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에게 시상식을 갖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백범상에는 "백범일지, 그 절절한 사랑의 기록"을 쓴 이지현(나성영락한국학교 12학년)이, 최우수상에는 정선영(샌디에고갈보리한국학교 5학년, "큰 사랑, 큰 희생"), 이하연(동양선교 한국학교 6학년, "백범일지를 읽고 나서") 등이 수상했다. (박준호 기자)



군사랑선교회 4월 정기모임에서 설교를 맡은 송정명 목사

군사랑선교회 4월 정기모임

군사랑선교회(회장 김희창 목사)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월드미션대학교 채플에서 4월정기모임을 갖고 금번 조국의 세월호 참사로 인한 유족들의 아픔과 조국의 트라우마를 안고 기도하며 사명을 다짐했다. 이종수 부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모임은 김희창 목사가 기도했으며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가 '백부장의 두 창문'(행 10:1-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진 합심기도 시간에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조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을 위하여 △세계선교, 민족과 군 복음을 위하여 △환자분들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기도했다. (기사제공: 군사랑선교회)

APU 2014 봄학기 학위수여식

목회학박사 김진산 목사, 심리학박사 김영리

아주사피서픽대학교(총장 존 윌레스 박사)는 2014년도 봄학기 학위수여식을 3일 오전 9시30분 본교 쿨거스 스테디움에서 졸업생과 스텝 그리고 하객 등 3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박사 11명, 교육전문가 10명, 석사 540명, 학사 173명 등 총734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한인인 20명으로 그중 김진산 목사가 목회학박사학위를, 김영리 씨가 심리학박사학위를 수여받

았다. 특별히 김진산 박사는 2010년에 개설된 한인목회학박사과정의 두 번째 박사학위 수여자다. 총장 존 윌레스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졸업식은 설교자로 나선 존스톤 목사(베이사이드처치 담임)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마16: 25)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1899년 '하나님 먼저(God First)' 교훈으로 개교한 아주사피서픽대학교는 모범적 기독교대학으로 110여년의 전통을 이어오며 7개 단과

대학에 1만4천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종합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음은 2014년도 봄학기 한인 학위수여자 명단이다. △목회학박사: 김진산 △심리학박사: 김영리 △간호학석사: 크리스틴 김, 안수연, 최미선, 한나연 △교육학석사: 저스틴 양 △음악교육석사: 백은경 △음악연주석사: 한소연, 임현정 △목회학석사: 김영환, 조수아 박, 신현덕, 송 혁, 이향숙, 이윤진, 정두진, 조희연, 김성은 △목회학석사: 조이스 김, 엔드류 김 △정보기술석사: 안젤라 김 △석사: 도안나, 이성희, 김장우, 박희정. (박준호 기자)



아주사피서픽대학교 2014 봄학기 학위수여식에서 20명의 한인학생들이 학위수여를 받았다. 사진은 본교 신학교 학위수여자들이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 동부교계 게시판



## 뉴욕교회 체육대회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승희 목사) 체육대회가 메모리얼데이인 5월 26일(월) 오전 8시부터 플라싱 메도우 코로나 파크에서 열린다. 참가희망교회는 교협으로 연락해야 한다. ▲문의: (718)358-0074

## KCTS 2014 공개모금 생방송

뉴욕 기독교TV방송인 KCTS(타임워너케이블 533, 사장 박용기 장로)가 실시하는 공개모금 생방송이 5월 24일(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본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개모금의 목적은 △스튜디오 확장 계획 △방송장비 구입 증설 및 교체(24시간 계속되는 운영관제) △양질의 프로그램 자체제작 증설 및 로컬뉴스 활성화 △가시청 지역(맨해튼) 확대에 따른 운영비 부담 등이다. 모금 방법은 1)KCTS 본사방문(노던블러바드 252-20) 2)전화 참여(718-224-8533, 8534) 3)신용카드(전화 혹은 방송사 방문) 4)무통장 입금 가능(신한은행 계좌번호: 113 600 2107, 예금주: KCTS) 5)체크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718)224-8533, 8534

## 뉴욕교회 할렐루야 장학생 모집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승희 목사)는 할렐루야 2014 대뉴욕 북음화대회 장학사업으로 회원교회 등록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금은 1인당 500달러. 대상은 현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12학년 제외)으로 신앙과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평균 3.25이상)이어야 하며 장학금신청서(교협양식, www.nyckccg.org에서 다운로드), 신앙고백서, 성적증명서, 담임목사 추천서, 사진(1.5X1.5)이 필요하다. 특히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를 우대한다. 신청마감은 2014년 5월 30일(금). ▲문의: (718)538-0074



왼쪽부터 박정찬 감독, 조영진 감독, 정희수 감독, 북유럽 유라시아 연회의 한인 4세 고려인 출신의 Eduard Khegay 감독, 총회장 안명훈 목사

# UMC 한인총회장에 이성현 목사

## 2014총회, “함께 선교하면 풍성합니다” 주제

연합감리교회(UMC) 한인총회(총회장 안명훈 목사) 2014 총회가 지난달 28일부터 5월 1일까지 뉴욕성서교회(담임 김용일 목사)에서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함께 선교하면 풍성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총회에서는 신입회장에 이성현 목사(LA 드림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일정은 첫째 날 오후 2시부터 한인 감독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개회예배가 열렸다. 둘째 날에는 총회세계선교부(GBGM)를 방문해 Thomas Kemper 총무로부터 연합감리교회 내의 선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뉴욕교회 방문과 뉴욕 명소 방문도 진행했다.

셋째 날은 주제에 맞도록 선교에 대한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됐다. 오전에는 이원규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21세기 세계 기독교 지형의 변화와 특징”과 “21세기 기독교 영성과 선교적 과

제”라는 제목의 전체 강연을 했으며 이어서 여러 선교적 주제의 워크숍과 ‘선교 박람회’가 동시에 열렸다.

선교 박람회는 여러 홀을 지역별로 나눠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선교 사역에 관한 내용을 전시하고 설명했다. 마지막 날은 한인총회 회무처리를 통해 2년 임기의 새로운 총회장을 선출했으며 폐회예배로 총회 일정을 마쳤다.

첫째 날 ‘한인감독과의 대화’는 총회장 안명훈 목사의 사회로 박정찬 감독(서스캐피나 연회), 정희수 감독(위스콘신 연회), 조영진 감독(버지니아 연회) 등에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동성애 문제, 평신도 직분제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후러싱제일교회(담임 장동일 목사) 문제는 총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결의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 프로젝트

## 뉴욕 참사랑교회 ‘우물파기’ 후원 음악회

지난 27일 이슬람 마을인 아프리카 몸바사 우르다의 기독교 “Bright Angels Academy”에 우물을 파주기 위한 후원 음악회가 열렸다.

“물은 생명이다” 주제로 뉴욕 참사랑교회(담임 은희곤 목사) 음악부(부장 홍명훈 권사)와 미국제기아대책기구(KAFHI, 사무총장 정승호 목사)가 주최한 이날 음악회에는 참사랑교회 성가대(대장 이연찬 권사, 지휘 김사라 집사, 반주 이은미 집사)와 월드 밀알선교함장단(지휘: 이다윗 목사, 단장: 이정진 장로)과 테너 신남섭, 바리톤 이요한, 소프라노 유경화, 이윤지, 조애실, 정은진, 메조소프라노 김현지 그리고 뮤지컬가수 랜디 브룩스가 출연했다.

또 피아노 박인혜, 바이올린 강은진, 이주은, 첼로 김혜원, 오보에, Scott Wollett, 팀파니 한문경 등과

참사랑 오케스트라(감독 홍명훈 권사, 지휘 박인혜 집사)가 연주했다.

음악회는 참사랑교회 성가대의 오픈링 송으로 시작해 마지막 피날레는 공연자와 참석자가 함께 헨델의 “할렐루야”를 합창했다.

은희곤 목사는 “하나님의 사역 동참” 프로젝트인 이번 음악회는 미국제기아대책기구의 요청으로 하게 됐다”며 “지극히 작은 자(소자)를 섬기는 이번 ‘섬김’ 프로젝트로 인해 이슬람 마을 안에 있는 기독교학교 공동체를 지원하고 물을 통한 ‘복음 선교’의 사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목사는 또 “아프리카의 지하에는 깨끗한 물이 많이 흐르고 있지만 우물을 팔 비용이 없어 1년에 300만명의 어린이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물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참사랑교회)



뉴욕참사랑교회가 주최한 우물파기 후원음악회 마지막 찬양 모습

# 다민족선교대회, 장경동 목사초청 조찬기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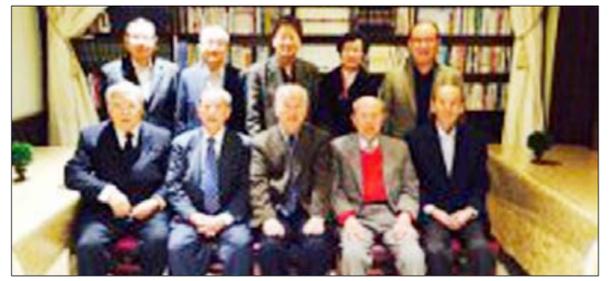
## 뉴욕장로연합회 제3차 정기임원회서 논의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정권식 장로) 제3차 정기임원회가 지난 1일 플라싱 금강산식당에서 열렸다. 1부 예배에 이어 2부 회의의 안건은 제3차 “다민족 선교대회” 및 준비.

준비위원장 이재훈 장로가 발표한 사업계획서를 조직, 준비일정, 예산, 홍보, 기타 사항에 대해 토의했으며 지난해 제1차 선교대회를 기반으로 제2차 대회는 더욱 많은 민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섬요하기

로 했다. 또한 “다민족 선교대회” 후원을 위한 ‘장경동 목사 초청 조찬기도회’를 준비위원장 김영호 장로의 주관으로 준비하기로 결의했다. 구체적인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조찬기도회: 6월 4일(수) 오전 8시 금강산 연회장 △다민족선교대회: 8월 24일(주) 오후 5시 후러싱제일교회(담임 장동일 목사).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뉴욕장로연합회 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 뉴욕성결교회 앞 도로 “Korean War Veterans Way”

뉴욕성결교회(담임 장석진 목사)의 교회 앞 도로가 “Korean War Veterans Way”로 불리게 됐다. 도로 이름을 명명하는 행사는 지난 3일 오전 11시 지역 참전용사, 정치인들, 지역 유지들, 뉴욕성결교회 장석진 목사와 교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그동안 뉴욕성결교회는 지역 거주 참전용사들을 꾸준히 섬겼으며 이번 명명은 이에 대한 참전 용사들의 보답이다. 2002년부터 모임장소를 잃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뉴욕성결교회 친교실을 모인 장소로 제공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교회 친교실을 “Korean War Veterans Hall”이라는 이름으로 정하는 명명식도 가졌다.

뉴욕성결교회는 매년 지역 참전용사들을 위해 섬김의 모임을 열었으며, 2년 전에는 음악회를 열어 4명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한국방

문을 후원하기도 했다. 지난 4월 30일에는 스테이플랜드 지역 참전용사 모임이 열리는 것을 도왔으며, 장석진 목사는 올해 메모리얼데이 퍼레이드 채플린이 된 바 있다.

한편 뉴욕성결교회는 지난 4일 장석진 담임목사 성역 40주년 기념예배를 가졌다. (정리: 유원정 기자)



주 예수교회 사회선교관 헌당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 주 예수교회 사회선교관 헌당예배 드려

## 지역사회 섬기고 다음세대 신앙일꾼 양성 박차

리치몬드 주 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가 지난 20일 부활주일에 디아스포라 사회선교관 헌당 감사예배를 드렸다.

1999년 12월 5일 모라비안 교회 건물을 구입해 첫 예배를 드린 후 꾸준히 성장해온 주 예수교회는 2001년 본당 건축과 2004년 교육관 건축, 그리고 2008년 본당 증축에 이어 네 번째 건축으로 사회선교

관을 헌당했다. 약 12,000스퀘어피트 규모의 선교관에는 주 예수교회 사회선교의 사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션룸과 영어목회부와 밀알장 애우 및 지역공동체 봉사 위해 활용될 커뮤니티홀, 2세 자녀들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어린이 예배당과 성경공부실, 그리고 교육 및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 공간이 마련됐다.

설립 후 계속해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향해 발전해온 주 예수교회는 이번 사회 선교관 헌당과 함께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세대 신앙의 일꾼들을 양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동 교회는 오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간 미동부 지역 최초로 “선교적 교회 건강한 교회”를 주제로 선교적 교회 세미나를 개최하며 또 6월 17일에는 미국장로회 제임스 노회가 열리게 된다. (기사제공: 주 예수교회)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b>뉴욕갯세미네교회</b>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b>뉴욕목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b>뉴욕새벽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b>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뉴욕중부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b>뉴욕초대교회</b>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TV영아예배: 오후 1:30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10: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주일학교: 오후 8:30 (매주1주,3주)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영아예배: 오전 9:45 찬양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b>롱아일랜드성결교회</b>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b>에벤에셀선교교회</b>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후 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오후 9:00	<b>예사랑교회</b>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b>주비전교회</b> 담임목사: 이규분 주일예배: 오전 12:30 주일2부예배: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5:00 영아예배: 오후 1:00	<b>중부뉴저지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후 1:00 영아예배: 오후 2: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월새벽예배: 오전 6:00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목요찬양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b>퀸즈한인교회</b>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b>한마음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마이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하와이행복교회: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하와이행복교회: Tel: (808)585-1859

하와이행복교회: www.hawaiichurch.org

하와이행복교회: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제28회 동요합창 경연대회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주님의영광한국학교 어린이들이 노래하는 모습

### 제26회 사랑의 마당축제 1천명 참가 자연 속 풍성한 먹거리로 즐거운 시간

제26회 사랑의 마당축제가 해피 빌리지와 사랑의빛선교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까지 사우스 엘몬티 지역 워터 내로우 레크리에이션 팍에서 1천여 명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제 1부는 고을일 목사(사랑의빛선교회) 찬양을 들으며 찬양을 흥 후 윤대혁 목사(사랑의빛선교회)가 '일어나 함께 가자'(아:2: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윤 목사는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

면 일켜 안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이며, 우리들을 귀하게 세워주시고 사용해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참가자 사진촬영을 하고 각 단체별로 2부 점심시간을 가졌다. 점심은 40여 단체별 부스에 준비해 놓은 음식을 각자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했다. 동양 선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는 각

종 빵을, 장애우사랑교회(담임 오진형 목사)에서는 남원골 추어탕에서 준비한 추어탕 50인분 등 각 부스마다 색다른 음식을 준비해 풍성한 점심식사를 했다.

3부는 악기연주, 특송, 찬양과 율동 그리고 다함께 중앙 무대로 나와 모두 함께 신나는 댄스를 추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다. 사랑의빛선교회 고을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연합기도회에서 한 참가자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마음을 찢는 기도로 하늘보좌를 열자"

####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연합기도회 성료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연합기도회가 1일 오후 7시30분 월성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열렸다.

강순영 목사(JAMA 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는 정중운 목사(한인목사회 회장)가 환영인사 및 기도를, 글로벌아시아찬양선교단(지휘자 노형진 선교사)의 특별 찬양이 있었으며 김준근 장로(JAMA 대표)가 '지금은 비상하게 기도할 때'(롬15:6, 대하7:1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장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우리 모두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오늘날 하늘보좌가 열리는 기도의 뜨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가를 위해 급속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기도의 밤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열린 기도는 △자신과 미국의 죄에 대한 회개 △교회와 목회자 △동성결혼 철폐와 성경적 가정의 회복 △공립학교와 각종 교사들의 영적 회복 △영화, TV, 방송, 인터넷 언론계의 복음화 △대통령과 장관들 △임법부, 사법부, 군지도자들 △CA 주, LA시, 소방관, 경찰 △한인교회 2세, 175개국에 있는 한인디아스포라 등의 제목을 놓고 합심기도가 있었으며 송정명 목사(월트미션대학교 총장)의 축도로 마쳤다.

은혜 가운데 열린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연합기도회는 저조한 참여율을 보여,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미국을 위해 한인디아스포라가 미국 땅에 정착하게 됐다. 미국을 우리가 살려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된 듯 아쉬움을 남겼다.

(박준호 기자)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One Love May Day 영상집회에서 프렌시스 찬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 주님의영광교회서 One Love May Day 제2회 호프리게인 겸 개최, 다민족청년 대상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가 주최한 One Love May Day 집회가 지난 30일부터 5월 3일까지 개최됐다. 영아권청소년, 청년연합집회인 집회는 마이클 세더터, 프랜시스 찬, 데이브 기브스, 브라이언 브랜트 등 널리 알려진 목회자들이 연합으로 캘리포니아를 순회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이회갑 목사는 "원리본 집회는 대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조교과 모임으로 매달 캘리포니아의 각 도시에서 열렸다. 집회는 여름방학이 되기 전까지 매달 갖는데 이번 집회는 마무리를 알리는 원리본 메이데이 집회로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리본 축이 주님의영광교회로 장소를 정한 이유는 "다민족 도시 LA의 상징성에 맞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 6천명이상 수용 가능한 주님의영광교회로 결정됐다"며, "작년에 젊은 세대를 위해 열었던 호프리게인 집회의 두 번째 집회를 겸한 것이다. 내년에는 다

시 호프리게인 집회로 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일 저녁 7시30분에 열린 저녁 집회는 ISLA VISTA 워싱턴의 찬양인도로 시작, 데이브 기브스 목사가 인사말을 했으며, 프랜시스 찬 목사가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 한국성서유니온 미주서부지회 '독자세미나'

#### '로마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강사 임철 목사

한국 성서유니온 미주 서부지역 위원회(대표 민종기 목사)가 주최하는 '독자 세미나'가 한국 성서유니온 사역부 연구팀장 임철 목사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지난 29일 총현선교회(담임 민종기 목사), 30일 감사한교회(담임 김경일 목사)에서 각각 개최됐다.

29일 '로마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복음의 진수를 경험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임 목사는 "로마서는 인생과 역사를 뒤바꾼 복음"이라고 정의하고 "정복의 노예로 인생을 허비하던 어거스틴을 하느님 도성으로 인도한 성자라 만들어낸 복음, 루터의 마음을 뒤흔들며 1517년 11월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게 해 결국 중세를 뒤흔든 복음, 1748년 5월 24일 런던의 울더스게이트에서 요한 웨슬

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의 불씨를 지핀 복음, 1818년 8월 인본주의자들의 낙관주의와 자유주의적 사고를 대장하는 포성이 간간히 들릴 때 시골교회의 목사인 캄바르트로 하여금 교회와 설교의 영성에 혁명을 가져온 주석을 내놓게 한 복음이 바로 로마서"라고 설명하며 로마서의 대 주제는 '하나님의 의'라고 정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Faithful Righteousness)는 아들의 신실한 순종(Faithful Obedience)을 통해 성취되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 서부교계 게시판

#### 크리스찬 문학 출판기념행사

미주크리스찬 문인협회(회장 정지윤 목사)가 주최하는 크리스찬 문학 제 25집 출판기념행사가 17일(토) 오전 11시 작가의집(2410 W James M. Wood, LA, CA)에서 개최된다.

▲문의: 정지윤 목사 (213)249-0771, 고광이 (310)612-9580

#### 제 7회 글로벌다민족콘서트

제 7회 글로벌다민족콘서트가 글로벌다민족제선교연합회(대표 정운명 목사/월트크릭GIM교회 담임) 주최로 5월 18일(주) 오후 6시 북가주에 위치한 월트크릭 Saint Matthew Lutheran church(담임 Kevin Murphy 목사)에서 열린다.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시67:3)라는 주제로 미국과 열방의 부흥을 추구하는 35여 민족교회가 연합으로 여는 콘서트다.

▲문의: (925)639-9527

#### 나성영락교회 2014 학부모 세미나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18일(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2014 학부모 세미나'를 개최한다. "힘을 주는 부모가 되기 위한 기본 태도와 대화기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양은순 교수이며 세미나 장소는 본교회 한국어 고등부 예배실.

▲문의: (323)227-1400

### 말씀새로운교회 장학금 수여식

말씀새로운교회(담임 김희창 목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회의 청소 봉사자와 바이올린, 기타 악기로 예배를 돕는 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업성적도 우수한 모범생 2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생은 성경(대입 예정), 자수아(11학년)으로 장학금은 지난 부활절 헌금으로 지원했다.

(기사제공: 말씀새로운교회)



말씀새로운교회 장학금 전달식 모습



성서유니온 선교회 주최 매일성경 미주 독자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한국 성서유니온 사역부 연구팀장인 임철 목사가 열린 강의를 하고 있다

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는 신실함(Faithfulness, 믿음)으로 화답할 때 이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임 목사는 "로마서는 구원은 단순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1) 이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것이며, 2) 내 육체나 마음이 원하는 것에 따라 살지 않겠다(순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3)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아야 한다.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이 그분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714)876-8832 김진국 목사(미주서부지역위 간사)  
(박준호 기자)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b>	<b>감사한교회</b> 담임목사: 김경일 www.thanksgivingchurch.com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lafgusa@yahoo.com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경진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광삼 Tel. (562)691-0691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업 Tel. (626)691-0691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Tel. (213)481-2779	<b>남가주리더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www.scrdm.com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Tel. (714)772-7777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Tel. (310)719-2244	<b>동문교회</b> 담임목사: 김상호 Tel. (213)483-6625	<b>동양선교회</b> 담임목사: 박형은 Tel. (626)694-6214
<b>드림교회</b> 담임목사: 이성현 Tel. (626)793-0880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Tel. (213)380-9377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www.mjplca.org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Tel. (310)745-9191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Tel. (949)854-4010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덕 Tel. (626)694-6214
<b>삼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www.samsungchurch.org	<b>새찬양교회</b> 담임목사: 변윤선 www.newpraisechurch.org	<b>새생명선교회</b> 담임목사: 김만수 Tel. (818)952-2449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Tel. (213)745-9191	<b>아카데미 온누리 소망교회</b> 담임목사: 조묘숙 Tel. (626)533-1155	<b>안디옥장로교회</b> 담임목사: 지윤성 www.laacp.org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성호 Tel. (213)245-4090	<b>월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Tel. (213)384-2724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www.gracemc.org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Tel. (310)530-4040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www.cornerstonech.com	<b>토렌스조교회</b> 담임목사: 김바울 www.torrencechc.org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N.Y.: Tel. (718)886-0074				

# 2014 가정의 달, 청소년을 더 껴안자...

## “고맙다, 사랑한다” 지금 말하세요

[미션라이프]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아들. 무고한 희생을 슬퍼하는 이들이 길게 줄 서고 있다. 경기도 안산 공시 분향소를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조문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또래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들은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 희생된 단원과 학생들의 꽃잎 같은 얼굴과 내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분향소에 가지 않은 부모도 마찬가지다.

부모는 무사히 귀가한 아이들을 거실에 세운다. “한번 안아 보자.” 딸을 끌어안는다. “고맙다.” 문득 아이들을 대한 태도를 돌아본다. 그동안 대화는 없고 ‘감시’만 있었던 것 같다. “학원 다녀왔니?” “숙제 다 했어?” “시험은 언제야?” 세월호가 침몰하는 긴박한 순간, 신도들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내가 말 못할까봐 보내놓는다. 사랑한다’고. 다행히 신군은 구조됐다.

이제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자. 눈 맞추고 얘기 나누자. 처음엔 어색하지만 하다보면 익숙해진다.고, 행복해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 ‘공부노동 감시자’는 아닌가

지난 주말 아이들과 안산 울림 펍기념관에 있던 임시 합동분향소를 찾았던 유모(42·여)씨.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그 아이들에게 미안하더라고요. 분향을 하고 나니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네요.” 고2, 중2 아들과 네 살 늦둥이 딸을 둔 그는 아이들에게 하던 ‘잔소리’를 줄

였다. “아이들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건데, 제가 그동안 ‘공부하라’고 애들을 너무 누르다했던 것 같아요.”

이한민(50·성도교회) 안수집사 역시 딸(16)에게 성적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부르실 대로 헌신하고 사랑하며 살아 가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 집사는 며칠 전 딸에게 ‘내 토끼 새끼, 점심 먹었어?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라고 문자를 보냈다. “아이 가 살아 있어 고맙다고 말하는 것조차 아이 있는 분들에게 미안하네요. 위로 받기조차 힘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그의 딸은 ‘뭐야? 갑자기. 설교 테이프를 들은 거야’라고 답장했다.

실제로 평범한 청소년들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성적’이다. 2012년 한 청소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두 명 중 한 명꼴로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었다. 가장 큰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35.5%)였다. 가족 불화(20.1%)가 뒤를 이었다. 언어학자 정도상씨는 저서 ‘엄마로 돌아가라’에서 “한국의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의 공부를 감시하는 ‘공부노동 감시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학대하지 말고 ‘엄마’로서 아이를 사랑하고, 자녀의 발달에 맞게 가르치라”고 조언했다.

### 건강한 가족은 경청하고 공감

많은 부모는 ‘공부’ 외 자녀와

할 얘기가 없다고 푸념한다. 평소 대화를 나누지 않아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표현이 섬세하지 않다. 아이에게 상처 주기 십상이다. 평소 자녀와 타인을 위한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지난 28일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만난 이연옥(42·여) 집사의 생각은 이랬다. “주변 엄마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사고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 부(富)를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온 우리 모두의 잘못 아니겠나. 아이들한테 경쟁에서 이기라고 할 게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공부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홍문수 신반포교회 목사는 매년 학부보 훈련 세미나에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마 22:37-40)는 말씀처럼 인성의 요체는 자신과 이웃 사랑, 나아가 민족과 인류사랑”이라고 강의한다.

자녀와 대화할 때는 비난이나 모욕, 비판을 삼가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OO는 시키지 않아도 공부한다는데 넌 틈만 나면 TV 앞에 앉고 그거 뭐냐?” 자녀에게 자주 쓰는 화법이다. 이윤정 한국비폭력대화센터 인증지도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모욕, 비난하는 말은 청소년기 자녀의 반발심만 더 키운다”며 “부모가 관찰할 상황에 대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매일 한 차례 이상 “사랑한다”

자녀는 때로 인생의 십자가로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분명 큰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미 기독교 상담심리학자 데이비드 클락은 “부모의 첫 번째 의무는 자녀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수정처럼 투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매일 하루에 최소 한 차례 이상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제안했다. 사랑 받는다는 확신을 가진 아이들은 어딜 가나 밝고 자신감 넘친다고 했다. 사랑의 방식은 자녀의 특성과 나이에 맞춰야 한다. 자녀 양육 세미나를 인도하는 임완철(44) 성서유니온교회 남서울지부 총무는 “사춘기 청소년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외부의 침입을 싫어한다”며 “1주일애 한 차례 기도 모임이나 가정예배 시간을 정해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자녀가 사춘기를 겪으며 정신적으로 격동하는 시기라면 부모는 신체적·사회적 쇠퇴를 겪으며 ‘사춘기(思春期)’를 겪는다. 서로 여러 가지 격변을 겪기 때문에 소통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중학생 이상 되면 대화의 통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매주 기도모임에서 한 가지씩 감사한 일을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눠요. 유아기 때 베이비 마사지와 축복기도, 학령기 때 독서와 성경 묵상을 많이 시켰어요.” 유년기에는 스킨십, 학령기에는 자율학습과 영성훈련, 청소년기에는 자녀의 세계를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임 총무의 설명이다. 그의 아내 유미순(43·빛과소금교회) 사모는 또 다른 관점에서 명쾌하게 말했다. “세월호 사건을 보더라도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공부도 과정을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진 것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행복이요? 하나님 나라 일 하면서 사는 거죠.”

# 예정합동 부총회장 선거 ‘3파전’

## 김승동, 박무용, 정연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예정합동·총회장 안명환 목사) 총회의 차기 부총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30일 예정합동총회에 따르면 김승동(구미상모교회·구미노회), 박무용(대구 황금교회·대구수성노회), 정연철(양산 삼양교회·남울산노회) 목사(이상 가나디순)가 각각 해당 노회로부터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됐다. 김 목사는 1991년 구미상모교회에 부임했으며, 박 목사는 1980년 황금교회를 개척해 지금까지 시무하고 있다. 정 목사는 1987년부터 삼양교회에서 목회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후보등록 기간(6월 1-15일)에 등록을 마친 뒤 정식 후보가 되며, 부총회장은 오는 9월 제99회 정기총회에서 ‘절충형 직선제’를 통해 확정된다. 절충형 직선제는 현재 추대된 3명의 후보 가운데 제1

표를 통해 결선 진출자 2명을 선정한 뒤, 이후 현장에서 총대들의 직접 투표를 거쳐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이호영(서울 대남교회·강남노회) 장로와 이승희(대구 반야월교회·동대구노회) 목사는 각각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 부서기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또 부회록 서기에는 김동관(수원안디옥교회·안주노회) 이규삼(모현제일교회·산서노회) 목사가 추대됐고, 부회계에는 강신홍(대구구중노회) 이춘만(부산노회) 장로가 추대됐다.

한편 현 부총회장 백남신 목사와 부서기 권재호 목사, 부회록서기 김정훈 목사, 부회계 서병호 장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9월 총회때 각각 총회장과 서기, 회록서기, 회계로 추대된다.

# 예정합동, 교단 탈퇴 홍재철 목사 징계 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예정합동·총회장 안명환 목사)총회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 본부에서 열린 총회실행위원회에서 합남노회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를 징계하도록 했다. 실행위에 따르면 합남노회가 홍 목사에게 2013년 12월 17일 총회 목사사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 ‘노회 명부 이름 삭제’와 별도로 홍 목사를 사벌해 오는 9월 총회 때 보고하도록 결의했다. 앞서 합남노회는 홍 목사가 교단명고 유산한 또 다른 교단을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것과 관련, 노회 명부에서 홍 목사의 이름을 삭제 처리했다.

한 실행위원은 이에 대해 “홍 목사

사가 원로 목사로 있는 경서교회가 여전히 교단의 노회에 소속돼 있어 홍 목사의 이름을 노회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면서 “보다 명확한 권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규철 예정합동 총무도 “해당 노회의 몇몇 교회들이 홍 목사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 ‘노회 명부 이름 삭제’와 별도로 홍 목사를 사벌해 오는 9월 총회 때 보고하도록 결의했다. 앞서 합남노회는 홍 목사가 교단명고 유산한 또 다른 교단을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것과 관련, 노회 명부에서 홍 목사의 이름을 삭제 처리했다.”

# “세상의 아픔 감싸줄 따뜻한 영화들”

## ‘서울국제사랑영화제’ 5월 22일-31일

‘사랑’을 주제로 하는 제11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Seoul International Agape Film Festival)가 오는 22-31일 서울 마포구 필름포름 등에서 열린다. 올해 키워드는 ‘차별과 관계’는 “원로 목회자들의 노력은 감사하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단을 가입시키고 사유화된 한기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 양 기구의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기총은 2012년 한교연이 갈라져 나간 데 이어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정) 합동과 예정 고신, 예정 합신, 예정 고려개혁, 예정개혁연대 등이 탈퇴하는 등 분열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풍경’의 장률 감독, ‘시선’의 이장호 감독과의 만남은 각각 23일, 25일 필름포름 1관에서 진행된다. 인형극단 ‘보물’이 24일 오후 6시 필름포름 1관에 이 공연한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아이들이 열광한다. 또 하나의 약속에 출연한 배우 유윤선씨가 영화제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 “한교연과 통합 조용기 목사에 위임”

## 한기총 전 대표회장 등 성명서 발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와 이만신 지덕 이용규 목사 등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등은 2일 서울 중구 소월로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한기총과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조건 없이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교회 대통합을 위한 원로들의 제안”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한국기독교선교 13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대통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며 “한기총과 한교연은 총론에서 무조건 통합

하여 하나가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각론에서 상임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현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2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한교연이 한기총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대표회장직을 사임하고 통합 대표회장을 선출할 것을 원로들 앞에서 선언하고 동의했다”며 “그러므로 통합 대표회장은 원로목사들이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협의에 공명하게 선출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한국교회 대통합을 위해(한기총은) 그동안 한교연에 고소, 고발한 모든 것을 취하한다”고 전제하고 “한기총 대표회장은 기독교를 내려놓고 향후 통합에 대한 모든 권한을 조용기 목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영훈 한교연 대표회장은 “한교연은 원칙적으로 양 기구 통합에 찬성 입장을 갖고 있으며, 원로 목회자들의 고견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은 임원회를 통해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 요구는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일고 있다. 한국장로회총연합회와 한국교회평신도단체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지회 자협회 등은 지난 달 2일 기자회견

을 열고 “한기총과 한교연의 분열과 갈등이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복음사역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두 기관은 양보와 이해로 빨리 통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예정 통합 관계자는 “원로 목회자들의 노력은 감사하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단을 가입시키고 사유화된 한기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 양 기구의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기총은 2012년 한교연이 갈라져 나간 데 이어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정) 합동과 예정 고신, 예정 합신, 예정 고려개혁, 예정개혁연대 등이 탈퇴하는 등 분열이 이어지고 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p><b>벌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월요일 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b>벨렐교회</b>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 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초고등학교: 2년 10시, (8월) 2년 11시 유치: 유년부: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89(렉스쿨)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8-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p><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c.org</p>	<p><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9:3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복: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lccs.org</p>
<p><b>앵커리지영림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b>엘파소영림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양)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복(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2:30 수요찬양예배: 오후 2: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Tel: (215)42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b>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새벽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8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an, TX 76541</p>	<p><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영양예배: 오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4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p>	<p><b>큰무리교회</b>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 토, 주일)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p>
<p><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p>	<p><b>타코마새생명교회</b>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월-토)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9-1432 9702 E. B. St, Tacoma, WA 98445</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수병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b>템프장로교회</b>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ikpcac.com Tel: (480)726-018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p>	<p><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11:00 월요일예배: 오후 7:4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p><b>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영양):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www.kcni.com</p>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변하는 아시아와 새로운 선교전략” (2)



노봉린 박사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Th.D)

## II. 오늘의 아시아교회를 위한 바울의 선교전략

인류역사는 문명의 발전을 동반하면서 되풀이 되고 있다. 동양인의 역사관은 순화하는 역사관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으며 병에 걸려 죽는 것이며 또 재생하여 같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아무 의미 없이 되풀이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속적인 서양인의 역사관은 나사모양의 역사관이며 인류역사가 농촌 문화로부터 봉건제도 문화로 그 자본주의 문화로 상승되었고 그 현대문화로 포스트모던이즘으로 진보되는 것이다.

1세기 때의 바울의 선교전략이 21세기 아시아교회 선교전략에 좋은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1세기 사회와 교회

밖에 있었다. 이 성전의 길이는 120미터, 넓이는 60미터, 기둥높이는 20미터로 높게 세워져 있었고 성전 박물관은 빛나는 대리석으로 경배하였다(행19:27-28).

이와 같이 오늘의 세계 대중교회는 모두 아시아에 존재하고 있다. 인도와 네팔의 8억의 힌두교인,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4억의 불교인, 아시아의 10억의 무슬림, 그 외에 수백만의 신도교인, 도교인, 유교인이 살고 있다. 아시아는 종교의 대륙이며 정부의 재정적 도움과 선전으로 정통종교를 강화시키고 있다.

3) 최악의 도시: 죄의 감각을 잃은 도시. 바울은 에베소인의 음란한 상태를 표현하

다.

## 2. 에베소의 복음화를 위한 바울의 선교전략

에베소교회와 아시아교회는 몇 가지의 공통점들이 있다. 첫째로 에베소교회는 작은 수의 교인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아시아교회도 아시아 인구 약 45억 가운데 단지 5%밖에 안 되는 소수 민족이다.

둘째로 에베소교회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 분쟁이 심각하였다(엡2:11). 이와 같이 아시아의 교회들도 다양한 언어, 지방색, 시골-도시 차이, 세대 차이 등의 배경 때문에 분열로 고통을 경험

# 바울의 에베소 선교전략 현 아시아교회에 활용 교회지도급의 성령의 은사 강조 제자훈련 실행

는 오늘의 아시아의 사회와 교회와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사도바울이 오늘 아시아에 살고 있다면 그가 분명히 에베소 도시와 교회를 지시하면서 에베소교회에 지시한 선교전략을 한 개의 좋은 모델로 아시아교회에도 주시 것이다.

## 1. 1세기 에베소도시와 오늘의 아시아의 공통점

### 1) 최대의 인구: 50만명.

1세기 때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에베소는 항구, 중앙시장, 도서관을 갖고 있었으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교육의 중심지였다. 이와 같이 아시아는 오늘 세계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의 대륙이다. 사도바울이 1세기 때 에베소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전을 가진 것처럼 오늘날 아시아의 소수민족인 기독교인(5%)이 95%의 비기독교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선교의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2) 종교의 도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대성전.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성전은 에베소도시

기를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하였다(엡4:19). 이와 같이 오늘의 아시아 사회도 부정부패, 다종의 성문란, 다종의 죄로서 도덕성의 감각을 상실해 버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 4) 종교핍박

사도행전 19장23절 이하를 보면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 에베소인들에게 판매한 데데트리오라는 상인이 바울의 전도 때문에 자기 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대하여 에베소 시민을 동원하여 시가행렬을 하며 외치기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행19:28)라고 하였다. 초대교회의 기독교인은 로마제국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순교를 당하였고 “카디움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왔다.

이와 같이 아시아-3과 아시아-4국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은 날이 늘어가는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오늘의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수 백의 기독교 핍박사건들이 보고되고 있다. 오늘의 기독교 핍박이 로마제국 콘스탄티우스가 주후313년 밀란칙령(Edict of Milan)을 선포하여 종교자유를 선포하기 전까지 초대교회의 핍박을 추억하게 만들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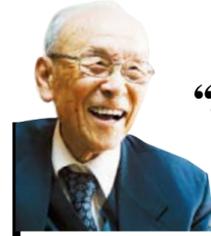
하고 있다.

셋째로 에베소교회는 제자훈련이 약한 탓으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엡4:14)라고 권면하였다. 오늘의 아시아교회도 심각한 교회지도자 부족난으로 제자훈련도 약하고 신앙의 성숙성과 이단문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의 에베소교회를 위한 선교전략은 교회지도자의 성령의 은사(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강조하였다(엡4:14). 오늘날 이와 같이 교회 지도급의 은사를 강조하여 제자훈련을 통하여 튼튼한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면 그들이 평신도를 훈련시켜 전도, 선교, 학생사역 외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아시아의 소수민족인 기독교인이 어떻게 아시아 대륙의 막대한 수의 비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답은 바울의 선교전략인 교회지도자 양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인이 복음을 효과 있게 타인에게 전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가 성경을 깊이 배우고 깊은 영성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계속)



방지일 칼럼 (38)  
“본대로 들은 대로”  
설교가 길어서

부지런히 심방도 잘하시고 행정도 잘하시는데 설교가 좀 길어서 조는 이가 많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단을 맡은 목사로서 자신을 점검해 볼만 하다. 나는 설교 부탁 받을 때 너무 짧다는 편이 있어서인지 우리 교회에 와서 꼭 40분은 해주세요의 주문을 받기도 한다. 어떤 특별집회일 때는 40분 이상도 하게 되나 어떤 교회 임직상이나 어떤 행사 때에는 간단한 것이 좋은 고로 8분을 넘기지 않게 기록으로 준비하는 것이 내 평생의 일이다. 길게 할 것을 단축하는 것이 길지는 않다. 간단한 말에 다 함축시키는 그 일이 실로 힘들다. 시 같은 작품엔 간단한 글귀에 내용이 풍부하게 함축된다. 길어지는 보통 원인은 설명을 자세히 하려고 설명에 설명을 가한다. 거기 적당한 예화를 든다. 말에 접속사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될 때 길어진다.

또 한편으로는 충분한 준비가 없을 때 길어진다. 준비가 완벽할 수록 짧을 수 있다. 원고를 쓰고 고쳐 쓰는데 줄일 수 있고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원고를 두세 번 쓰면서 줄일 수 있으면 더욱 알찬 간결한 설교가 되리라고 본다. 설교시간보다 그 준비 기도가 몇 배로 준비될 때 그 설교는 간단하면서 간결하여 긴 설명이 없어도 모든 듣는 자에게 감명이 커진다. 한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고 접속사를 여러 번 접속시키는데 청중은 피곤해진다. 그러니 짧게 마련이다. 좋다 잔다는 이가 있음이 보이면 그만 두시요로 목사는 받아야 한다.

나는 평양신학 재학 시에 실로 저명한 교수의 수하에서 사사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진다. 공판복음을 오래 가르치신 라부엘 교장은 번번이 교재 준비를 완벽하여 강의하신다. 그 책상에는 강의 노트가 그득하였다. 나는 그의 일을 도우면서 공부했기에 잘 안다. 어떤 일로 강의 준비가 안됐을 때 옛 강의노트를 쓰지 않는다. 강의실에 들어서서 ‘오늘 이사람 준비 못했지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휴강합니다’ 하고 나가시곤 했다. 이런 교수. 역사신학자 엄아력 교수, 조직신학의 이률서 교수, 원어에 왕길지 교수, 실천신학에는 곡안련 교수들이 당당한 학자였다.

교리에는 마포삼열 교수였다. 곡안련 실천신학교수계신 때로 설교를 간단하게 하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 준비에 반비례한다는 말을 하며 자고로 30분 이상 설교해 한 사람도 구원 받은 자가 없다는 말을 하곤 했다. 간결하게 말을 강조하는데 그 열매가 말이었다.

교인들의 타성으로 오래 믿은 분 교직자들이 흔히 잘 듣고 잔다. 그 타성 그 배부름에서 일 것이다.

설교의 준비에는 이 좋고 저는 분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내 어떤 어성으로 깨우려는 의도보다 영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질 때 그들의 영에게 영의 역사가 있어야만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게 된다. 책상을 쳐도 발을 굴러도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출고 자는 잠을 깨우지 못한다.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러지게 되는 신령한 예배일 때 예배 그 어느 순서나 다 영으로 집결되어진다. 더 더욱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이라 영으로 싸인 되어지는 그 한 말씀 그 한 말씀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고 흘려버리세라 귀담아 듣게 될 때 졸수는 없다. 졸수는 없다. 심방도 잘하시고 부지런하게 일하시는데 설교가 좀 길어서!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60년간 단을 지킨 자로서 어떤 말을 듣지 않았는가 자성해 보기도 했다.

나는 부지런히 땀. 분주하게 일한다는 평도 듣기도 했다. 그러나 분주함이 하나님께 들어가 싸인 받는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생기는 일이라 보아야 한다. 행정에 분주하지 못하도 교회밖에 관련된 일에 지나치게 시간을 빼앗긴다. 골방시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싸인 없이 단에 서게 되고 그 설교는 자장가를 부르는 노래가 수 밖에 없다. 행정에 좀 차질이 나도 심방에 차질이 난다해도 골방시간에는 차질이 나서는 안된다. 이 점에 유의한다면 조는 이가 자는 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 “설교가 좀 길어서” 하는 말이 들리면 목사는 골방 출입을 어겼음이 아닌가 자성해 볼만하다. 거기 들어가 싸인 받은 선포엔 즐거나 졸수가 없다.

(1996년 3권)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b>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왕동 870-10호	<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b>광주신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062)2-2646-1968, Fax. (062)2-4834-500 170 경교장역시 북구 문암동 936-1번지	<b>동경중앙교회</b>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b>든든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문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0 00175 ROMA, ITALY	<b>명성교회</b>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부터 시작)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3동 330-5, (134-830)	<b>새에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9: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00 (젊은이를 위한 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3동 640-1(152-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www.seongsil.or.kr Tel. (82)2-998-998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서동 221-49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포동 416-4(404-270)	<b>승승교회</b> 담임목사: 박삼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인사동 137 번지	<b>시은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942-1004, Fax. (031)942-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아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6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b>신천교회</b>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두정동 17길 29(금일동)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82)2-786-6579, 새벽(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전동 49-45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8: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동 415 www.yankok.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4-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중승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b>청주주요신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b>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b> 담임목사: 임진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새벽 5:00, 7:00, 9:00 금요기도회: 새벽 5:00, 7:00, 9:00 www.pco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ri S, Paulo Cep. 01529-01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adeira SP CEP 01505-010	<b>브라질 새사모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RP.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저녁 7:00 수요예배: 저녁 9:00 7:15종교개혁 2:00: 야생 7:40 수,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말)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스페니얼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min@hanmin.net Cervantes NO. 1001, Asunción-PARAGUAY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59)

### 3. 전세계 한인공동체에 대한 사역에 임해야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오늘은 한인교회 현직 목회자들의 재교육 및 평생교육을 위한 보장받기 위한 방안들을 몇 가지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안은 한인목회자 재교육 필요성에 대한 당위를 성도 개인 및 전체 교회들에 확실히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교육 및 지속 교육 필요성에 대한 목회자들 스스로의 인식의 전환입니다. 사실 한인 목회자들조차 스스로의 재교육 필요에 대해 형편상 외면해오면서 어 느새 둔감해져버린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목회적 요구들도 중요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감당할 사명이라면 미래적인 목회적 요구들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함을 기억하면서 스

제반 여건이 마련된다 해도 실제적으로 참여할 자들의 형편이 여의치 않다면, 사실 한인 목회자들을 위한 재교육 및 지속교육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 교회들과 교단들은 개별 목회자들이 일년중 일정기간 동안 재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제정해 보장하고, 이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교회와 교단의 정책으로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연구기간을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수업료, 도서비 등을 지원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실은 필자도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한인교회들과 성도들의 형편들을 모르는 바 아니며, 무리한 요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는 더 나은 우리의

것을 추구하는 것일뿐입니다. 기존 한인 신학교들과 연계하거나 규모가 큰 교회들과 연계하며 제반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한인 목회자들은 모두 우리 한인성도들을 성심으로 섬기기 위해 부름 받았으며, 이에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여 받았습니다. 성심으로 섬기고 바르게 인도하려면 그 과정의 요소요소마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풍성한 정보와 근거들이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유능함도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방안들로서 이에 대한 필요를 지속적으로 채워주고 자료와 정보 그리고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교육 및 지속교육은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반드시 담보해야 할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실제로 구현되어야 할 만큼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또한 경쟁 강화, 경제적 안정, 그리고 평균연령 증가 등으로 인한 자기 개발에의 요구가 편만하게 퍼지면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과 실행이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도입된 이때, 우리 한인 목회자들에게만 이러한 개념과 실행이 비껴가는 듯한 안타까움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 목회자 재교육/평생교육 당위성 인식이 우선 교회, 교단, 신학교 통한 다양한 통로 모색

스스로 다짐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먼저 재교육 및 지속교육의 필요성 및 당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교회전반의 인식변화를 추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 영달을 위한 커리어 개발이 목적이 아니며, 성도들을 더욱 더 잘 섬기기 위함입니다. 목회자들 스스로 당당하게 재교육 및 지속교육의 당위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형편이 어려워져 재교육 운운하는 것이 마음 편치 않다해서 재교육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바로 그 성도들을 위한 사역에 선택이 아닌 필수이니 말입니다. 개 교회 성도들의 인식변화를 추동함과 동시에, 또한 교단적인 지원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인교단들이 이민목회에 대한 정립과 연구에 대한 필요는 느끼고 있으나 형편상 미뤄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목회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안은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교육의 시간과 자원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야기에서 지적한바 한인 목회자들이 재교육 및 평생교육을 받기에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인식이 잡히고

미래를 위해 우리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미래적 과제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1년 목회계획에서 2-3주 정도는 목회자들이 재교육 및 계속 교육에 헌신하는 시간으로 지정하는 일과, 1년 예산을 논의할 때 목회자들의 재교육 및 계속교육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단에서도 특히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정책으로 세우면 어떻까 합니다. 그 기간동안 책정된 재원을 갖고 수업의 형태로 실시되는 재교육의 장에 참여하든, 책을 구입하거나 질 높은 내용이 제공되는 웹사이트 액세스를 구입하여 스스로 필요한 부분을 채우든, 목회자들이 최소한이라도 재교육 및 지속교육에 대한 목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세 번째 방안은 실질적으로 재교육 및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통로를 다양하게 마련하는 일입니다.

현재는 목회자들의 재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단체나 기관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처럼 교단신학교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내 한인교단들도 이를 잘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목회자들 스스로,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교단적으로 움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 월 사랑이란?(고전13:1-13)찬486장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첫째, 믿음과 소망과 함께 연결된 사랑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최종목표입니다(1-2). 그러므로 믿음으로 시작한 삶은 사랑의 열매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결코 양보될 수 없는 사랑을 이루려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을 구함으로 생명의 활동을 누리려 합니다. 둘째, 사도는 구속의 중심이고 목표인 사랑을 13가지로 설명하면 인내, 운운, 시기 없음, 겸손, 예의, 이타주의, 성내지 않으며, 약한

생각을 하지 않고, 견딜, 신뢰, 소망입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로 정리해도 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의인신으로 요약되기도 하고 여호와와 선과 진실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 사랑은 장성한 사람이 가질 특징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하는 것이 아이 같은 사람은 연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사랑을 나타냅니다.

### 화 중보자의 사역(요1:35-51)찬364장

전도에 있어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째, 전도의 최종 쟁점은 와서 보아(39)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사도의 전도방법이었습니다. 영화, 간증 등 수단들을 사용해도 그 목표는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언약백성을 찾는 일이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둘째, 나다니엘의 구원은 그 내용이 풍성했습니다(51). 의아심으로 시

작한 그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접해 그의 전지성을 깨달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아래 있었고 장차 올 메시아를 생각한 그에게 참 이스라엘이요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눈을 뜨게 해 그를 바로 알아보고 "이스라엘의 임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 후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는 자리에 나가도록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문을 향해 새 은혜를 구합니다.

### 수 영원한 양식(요4:27-42) 찬318장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무슨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첫째 영원한 양식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32)이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회심과 함께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바로 자신임을 보이셨습니다. 그의 숨은 뜻은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즉 자기백성을 찾는 일, 곧 전도며 선교입니다. 역시 주님은 성령을 통해 내게도 이 영생의 양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자신이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그들의 신앙은 직접 그

의 말씀하심을 들음으로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온전한 신앙은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이어야 합니다. 간증을 통하기보다 성경을 직접 연구하고 준행해 맛을 본 신앙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방망이 같고 생수 같고 빛 같은 말씀의 성격을 접한 자는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때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이 따릅니다. 그 자리로 나가 오늘도 이 영원한 양식을 채취합니다.

### 목 생명의 떡(요6:30-40)찬139장

본문에 나타난 생명의 떡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광야 이스라엘이 먹는 만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주의입니다(31). 이스라엘은 일시적 기적의 떡으로 살았으나 새 이스라엘은 참 만나인 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참 떡을 받아도 믿지 못하면 그 부요를 전혀 알 수가 없으며 기적을 체험해도 썩을 양식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둘째, 생명의 떡, 참 떡, 하늘로 내리신 살아있는 떡이란(35) 표현

에 중요한 것은 수식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 진리 그리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삶으로 성령충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가리킵니다. 셋째, 생명을 얻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장받는 자는 오직 믿는 자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한 계성에 머물렀으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리고 영원한 효력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 그 강한 생명을 누립니다.

### 금 죄를 이기는 삶(요7:53-8:11)찬 487장

본문은 신자가 어떻게 죄를 이긴다고 가르칩니까? 첫째, 물증이 확실한 그녀의 두려움과 수치심은(39) 마치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생긴 수치와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이용했다해도 그 여인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죄책에 사로잡힌 자는 요일1:9따라 자백해야하며 그 자백에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7절의 재판과 판결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란 뜻

입니다. 무분별한 판결로 하나님을 월권하는 일을 금하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셋째, 양심의 가책받은 그들이 다 떠나갔을 때 주님은 자신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간음이란 죄를 무마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담당할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용서받은 은혜의 힘에 의해 좌우됩니다. 용서받은 자의 삶은 죄와 싸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 토 실로암 소경이 주는 교훈(요9:24-41)찬508장

본문은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째, 실로암 소경이 눈뜰 기적이 안식일에 했다고 고소거리를 찾았습니다(31). 외식자들의 능수능란한 방법은 진리와 은혜와 거룩 뒤에 옹크리고 숨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나님께 영광이지, 자기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면 그를 먼저 즐거워해야 합니다. 둘째, 소경의 양심 속에 자리잡은 확신은 이상하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32). 우리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진

리를 따르며 오직 예수 그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셋째, 처음에는 선지자로 믿던 그는 다시 오신 그 분을 만나 인자로 믿었습니다(35). 인자는 단7:13의 예언된 그 분으로 초자연적으로 오셔서 자기백성을 불러모아 한 나라를 이루 그 분께 바치는 이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로 그 나라의 왕이 되신 그 인자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오늘도 전합니다.

###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 순례코스 일정

-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 B 코스: 터키 그리스 베트남 (바울의 전도에 따라) 11박 12일
-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체코 이탈리아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11박 12일

#### MISSION VISION TRIP

- 1) 멕시코 칸쿤(유카탄 반도) 8쿠바
-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 4) 알라스카(에스키모)(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ion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해수 선교목사  
Chief Rev.,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 보내실곳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LA :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 LA@chpress.net

신규  변경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영문:
② 교회(기관) 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영문:
⑤ 사택 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세요 ④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아세요

##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 우크라이나 이야기들 (2)



오금옥 선교사 (조지아 루한인교회)

키릴루스와 메소디우스 선교사

우크라이나에서 키릴루스와 메소디우스 선교사 형제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글자를 못 읽는 조선백성들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한글을 만들었는데 우크라이나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 형

통역도 러시아어로 합니다. 독립한 지 20여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러시아 어로 한다고 해서 의아했습니다. TV, 방송, 학교, 공문서 등은 우크라이나로 합니다. 정치가들이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어로 이야기하다가 흥분하거나 바빠지면 러시아어가 튀어나오곤 합니다. 70년 동안 우크라

라입니다. 넓은 영토에 잠재력이 많은 나라인데 국내적으로 문제가 많 다보니 경제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하고 불안정한 요소가 많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라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말합니다.

인구 300만인 키예프에는 약 300여개의 크고 작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200여개의 공연장에서 발레,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의 각종 공연이 열린다하여 밤 외출을 준비하였는데 월요일에는 없다하여 아쉬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랜 역사와 전통예술의 향기가 있는 나라로 아름다운 여인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필자도 모델같이 예쁘고 늘씬한 금발 여인들을 곳곳에서 만났습니다. 건물마다 예술적으로 붙어 있는 번호와 이름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명패인지 주소인지를 궁금했는데 알아보니 도시거리의 건물에는 '문화재 지정보존 건물'이라는 명패와 함께 건축연도가 적혀 있어 역사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서 계절 농사꾼으로 땅이 기름진(혹은) 이곳으로 왔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이곳에 주저앉아 살게 되었는데, 구소련 시절에는 서로 왕래하기에 불편이 없었으니까요. 소련이 붕괴되고 15개 공화국별로 국경선이 그어지고, 새로운 지역에 들어와 정착하면 국적이거나 거주 근거 확보 등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탓이지요.

타지키스탄은 내전이 끝난 1993년부터 자국 패스포트를 발부했는데 많은 고려인들이 소련 패스포트를 소지한 채로 전란을 피해 우크라이나로 이주했습니다. 귀환할 의사가 전혀 없는 고려인들은 타지키스탄 국적회복절차를 밟지 않고 무국적상태로 계속 체류하여 그 부모 밑에서 출생한 2세들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무국적이 됩니다. 1991년 구소련 해체 후 이들은 무국적상태와 타국적 불법 체류자들이 되어 우크라이나 경찰들에게 시달림을 받게 됩니

## 선교사 형제가 슬라브족 포교 위해 키릴 문자 만들어 고려인들 구소련 해체 후 무국적 불법체류자로 전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글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경이롭습니다.

선교를 위해 만든 문자는 슬라브족 언어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하며 독특한 문화로 꽃 피웠지요. 9세기에 동방정교회를 믿는 슬라브어 사용자들을 위해 고안된 표기 체계인 키릴 문자(Cyrillic alphabet)는 러시아어를 비롯한 옛 소련의 언어들로, 현재는 동유럽(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와 몰도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일부지역, 크로아티아 일부지역, 루마니아 일부지역,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공화국)과 중앙아시아, 북아시아와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일부지역, 몽골에서 쓰이는 문자라고 합니다.

슬라브족은 키릴로스 형제가 전한 그리스정교와 키릴문자로 교회예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슬라브어로 드러지게 되었지요. 키릴과 메소디우스는 슬라브어를 표현하기 위해 새 문자 알파벳을 발명하여 성경을 번역하고 기도문과 예식서를 번역합니다. 라틴어가 아닌 슬라브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슬라브인 교회지도자를 훈련시켜 신앙의 토대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형제는 슬라브 선교를 인정받아 로마카톨릭과 동방정교회에서 모두 성인으로 추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어도 러시아어와 약 30%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같은 동(東)슬라브어 계통으로 통역 없이도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나는 소련의 공화국이었던가 1991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아직 많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흑해의 북쪽 해안에 접해있는 이 나라는 비옥하고 산림이 많은 평원으로 천연자원인 석유, 석탄, 철광석, 천연가스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곡창지대이며 구소련 때는 프랑스보다 더 큰 농업생산량을 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야, 전국토의 90%를 차지하는 풍요한 흑토에서 생산되는 곡식과 작물로 축복받은 땅입니다.

제가 머물던 신학교 객실 뒤편에는 연꽃잎보다 더 큰 호박잎들이 넘출거립니다. 아무 곳이나 심어도 잘 자라한다고 합니다. 풍요한 흑토를 바

합니다.

고려인

역사를 돌아보면 우크라이나는 주변국에 의해 큰 고통을 겪어온 나라이지요. 침략을 많이 받아 한국과 비슷한 동질감을 느끼게 하여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는 고려인들이 3-4만명 거주하는데 약 반이 불법 체류자들이랍니다. 고려인 1만3천명은 우크라이나국적을 가졌으나 타국적 고려인은 2만명 가량이랍니다. 1930년경 스탈린시대에 중앙아시아로부터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 삶의 이야기는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 등지에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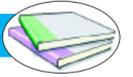
남의 땅을 빌려 숨어가면서 농사를 짓는 이들은 경찰단속이 무서워 시골에서 군 중심 지역에도 거주하지 못하고 들판의 움막에서 생활한 대요. 변호사를 써야하는데 그럴 형편도 안되는 상황이지요. 고려인 2세들은 성년의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국적을 가져야 대학 진학이 가능하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근면해도 교육을 받지 못하면 유망같은 부모의 운명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LG등 한국 기업과 당시 대사이었던 허승철 대사와 대사가관이 합심하여 한국대학(서울대, 강남대, 연세대, 계명대, 인화대, 한양대, 외대, 명지대, 건국대)에 고려인 학생을 초청하는 길을 열어 놓았

습니다. 박 선교사님 댁을 방문했을 때 허승철 대사의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국대사이면서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아름답게 쓰임 받음을 봅니다.

제가 만난 고려인 할머니집사님, 아들, 손녀딸은 서로 언어가 통하지는 않아도 같은 피부이며 같은 핏줄이라고 따뜻하게 반겼습니다. 소박한 음식을 차려놓고 더 먹으라고 자꾸 권하며 손을 쓰다듬고 어색한 발음으로 우리말을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 먼 나라이지만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어 감사가 컸습니다.

(계속)

### 책 소개



저자 이재근 목사

## “가정선교” -하나님의 최대관심사

이재근 목사(주사랑선교회 회 담임)가 최근 “가정선교”(쿰란출판사)를 출간했다. ‘하나님의 최대관심사’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본서는 그동안 이 목사가 각 매체를 통해 기록했던 칼럼들과 저자의 철학 박사 학위논문인 ‘성경적 가정 사역’을 근간으로 묶어냈다. 저자는 지난 2006년 4-5월



### 가정생활에 꼭 필요한 제언들

경 LA 한인사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이 9건이나 되고 이 사건들로 사망자가 14명이나 되는 사건을 직면했고 이 사건들 가운데 가정불화로 인한 사건이 무려 6건이나 됐다는 사실을 보며 마음에 심한 찢림과 질책을 느껴 가정 사역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머리말에 적고 있다. 이후 저자는 미주내 기독교인들을 통해 가정선교(Family Mission)를 주창하며 칼럼을 집필해왔다.

본서는 제1장 가정, 제2장 가정선교, 제3장 가정문제 해결방안으로 크게 구분돼 각 장마다 가정생활에 꼭 필요한 제언들을 가득 채웠다.

제 1장은 자신의 논문을 바탕으로 ‘가정의 어원’, ‘가정의 정의’, ‘성경적 가정 용어’, ‘가정의 기원’, ‘가정의 본질’, ‘가정의 5가지 목적’을 비롯한 14가지 제목의 글을 수록했다. 특별히 제 2장 가정선교에서는 “가정선교”라는 말 자체가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신개념의 새로운 분야여서 소재목 하나하나가 영감으로 받고 재해석했다”며, ‘가정사역에서 가정선교로’, ‘가정선교’, ‘가정파괴는 말세기적 사탄의 작전’, ‘가정선교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가정선교는 시대적 요구’ 등 13개 제목의 글을 수록했다.

또한 3장에서는 ‘신자간 결혼’, ‘부권회복’, ‘가정의 질서 회복’, ‘온전한 가정예배’, ‘원만한 대화’의 제목으로 실제적인 가정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규범’, ‘아내의 규범’, ‘부부싸움의 도’의 부록을 통해 행복한 크리스천가정이 되도록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

한편 신원국 목사(에반겔리아/복음대학교 총장)는 “현실적 실상을 외면하지 않고 세속화되고 참된 행복을 잃어가는 현대가정이 회복하는 방법을 성경적 근본 논리에서 서술했다”고 치하했으며 송정명 박사(엘드미션대학 총장)는 “깨진 가정은 회복되고 영적 결손가정은 복음화시켜야 한다. 이 책을 통해 가정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 바란다”고 본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성목 장로(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상임이사)는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길 기대한다”며 본서를 추천했다.

이재근 목사는 경희대학교 사범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비전크리스천칼리지 상담학 전공(M.Div), 비전인터내셔널유니버시티 가정사역(Ph.D)을 전공했으며 현재 크리스천비전 편집고문, 주사랑선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다.

책 구입에 관한 문의는 (562)714-0691 또는 jaekunlee00@hotmail.com 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 피종진 목사 초청 캐나다 캘거리 연합성회

2014년 5월 20일(화) ~ 25일(주일)



- 20(화) 저녁 캐나다(CANADA) 캘거리 열두섬교회(김홍식 목사) 목회자 사모세미나 ☎(403)771-1441
- 21(수) 저녁 캐나다(CANADA) 캘거리중앙장로교회(고철주 목사) ☎(403)992-1004
- 22(목) 저녁 캐나다(CANADA) 캘거리벤넬교회(이재영 목사) ☎(403)263-0330
- 23(금) 저녁 캐나다(CANADA) 캘거리순복음중앙교회(김원호 목사) ☎(403)249-5056
- 25(주) 오전 캐나다(CANADA) 캘거리제일장로교회(강진우 목사) ☎(404)273-8665
- 25(주일) 오후 캐나다(CANADA) 캘거리영락교회(송영배 목사) ☎(403)969-3659

주최 : 캐나다 캘거리 기독교연합회(회장 김홍식 목사) ☎(403)771-1441  
문의 : 대안역우교당 남서울중앙교회 ☎ 010-5255-7777